연구자료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 콩고(DRC) · 남아공 · 에티오피아

박영호 · 김민희 · 전혜린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 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 · 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 반년간 『대외경제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장 채 욱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연구자료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박영호 · 김지연 · 전혜린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주)현대애드컴 ☎ 02-2275-8125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184-7 94320
978-89-322-2064-2(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국문요약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 콩고(DRC) · 남아공 · 에티오피아

박영호 · 김지연 · 전혜린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

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

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머리말 17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17
2. 연구 범위 및 의의 20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24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4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27
   가. 인프라 개발 27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28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31
   라. 환경문제 해결 34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37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39

1. 가나 39
   가. 정치·경제 현황 39
   나. 산업구조 42

다. 경제개발정책 44
라. 대외경제 46
2. 콩고(DRC) 47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47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49
다. 주요 산업 51
라. 대외경제 63
3. 남아공 65
가. 경제 현황 65
나. 산업구조 67
다. 남아공 시장평가 69
라. 대외경제 73
4. 에티오피아 76
가. 정치 현황 76
나. 경제 현황 77
다. 대외경제 79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84

1. 가나 84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84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86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87
2. 콩고(DRC) 89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89
나. 인프라 건설 92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93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97
3. 남아공 99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99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100
다. 원자력 협력 102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102
4. 에티오피아 105
가. 수력발전: 소수력 105
나. 보건의료 지원 107
다. 교육개발 지원 111
라. 농업개발 지원 112
마. 식수개발 114

제5장 맺음말 116

참고문헌 121

Executive Summary 125

표 차례

표 1-1. 아프리카(사하라이남) 국가별 협력 우선순위 23
표 2-1. 아프리카 농업인구 및 GDP 대비 농업 비중 29
표 2-2.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주요 영향 35
표 2-3. MDG 목표와 환경과의 연관성 36
표 3-1. 가나의 근대 약사 41
표 3-2. 가나 주요 경제지표 42
표 3-3. 가나의 산업구조 43
표 3-4. 가나의 수출·입 현황(2006~09년) 46
표 3-5. 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51
표 3-6. 콩고와 SSA 지역의 농업여건 비교(2006~08년 기준) 53
표 3-7. 콩고의 주요 자원 보유 현황 56
표 3-8. 주요국의 콩고 자원개발 참여 현황 61
표 3-9. 콩고의 광업 SWOT 63
표 3-10. 콩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4
표 3-11. 우리나라와 콩고의 교역규모 65
표 3-12. 남아공의 주요 경제지표 66
표 3-13. 남아공의 산업구조 67
표 3-14. 향후 5년간 성장유망산업 68

표 3-15. 남아공 광물자원의 부존량: 세계적 비중 69
표 3-16. 남아공 경제환경 평가 69
표 3-17. 남아공의 투자환경 개요 72
표 3-18. 남아공 수출입 현황 74
표 3-19. 한국의 대남아공 직접투자 현황 75
표 3-20. 에티오피아의 산업별 성장률 및 비중 78
표 3-21.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 79
표 3-22. 에티오피아 경상수지 80
표 3-23. 국제기구의 에티오피아 중점 원조분야 81
표 3-24. 주요 공여국의 분야별 에티오피아 원조동향(2009년) 82
표 3-25.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원조 현황(유·무상) 83
표 4-1. 잉가(Inga)발전소 현황 및 건설계획 96
표 4-2.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공 100
표 4-4. 에티오피아의 전기보급 현황(2008년) 105
표 4-5. 국내 소수력발전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2006년 기준) 108
표 4-6. 에티오피아의 아동 백신접종률 110
표 4-7. 에티오피아의 보건분야 정부지출 비중 110
표 4-8. 에티오피아의 지역별 초등교육 등록률 112
표 4-9. 에티오피아 주요 작물의 생산성(2008년) 113
표 4-10. 아프리카의 물부족국가 전망(2025년) 115

그림 차례

그림 2-1. 아프리카의 정치분쟁 및 경제성장 25

그림 2-2 2010~20년 세계 지역별 경제성장 전망 비교 26

그림 2-3. 아프리카(사하라이남) GDP 규모 전망 26

그림 2-4.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비중(2008년 기준) 29

그림 2-5. 개도국 지역별 전기사정(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전망 32

그림 2-6. 아프리카 내 기업활동의 제약요인 33

그림 3-1. 가나의 중기(2010~13년) 개발계획 개요 45

그림 3-2. 한·가나 교역 현황 47

그림 3-3. 콩고의 농업 비중 52

그림 3-4. 콩고의 농산물 대외무역 추이 55

그림 3-5. 콩고 주요 광물생산의 세계적 비중 58

그림 3-6. 콩고의 주요 광물생산 현황 58

그림 3-7. 콩고의 광물자원 분포도 59

그림 3-8. 주요 외국계 광업회사의 진출 현황 60

그림 3-9. 콩고의 교역 현황 64

그림 3-10. 콩고의 품목별 수출비중 64

그림 3-11. 남아공의 경제성장률 추이 66

그림 3-12. 남아공의 성장성·시장성 평가 71

그림 3-13. 남아공의 아프리카(SSA) 내 경제적 위상 71
그림 3-14. 한국의 대남아공 수출입 추이 75
그림 4-1. 가나 농업개발 지원의 4대 중심축 85
그림 4-2.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 비교 88
그림 4-3. 아프리카의 수력발전 잠재력 107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콩고 내전(1998~2003년) 49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1)]

아프리카가 지구촌의 마지막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빈곤의 대륙', 또는 '원조대상국'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발전 가능성, 그리고 세계적인 자원수요에 따른 자원개발 잠재력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의 이러한 변화와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대규모의 개발원조를 통해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속도는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할 정도이며 EU, 미국, 일본, 인도 등 역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유수입 의존도는 30%(2009년)에 이르렀으며 오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45%에 달할 것으

1) 박영호외(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통상전략: 아프리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의 석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2005년부터 중동보다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EU는 중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에 따른 기득권 약화를 우려하며 FTA 및 원조 확대 등을 통해 관계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가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이 만연해 있고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지역이지만, 잠재적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막대한 양의 석유자원이 부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아프리카의 원유 매장비중은 10% 수준이지만, 탐사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적인 원유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2]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가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신흥 에너지자원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석유자원 이외에도 우리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여러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해외건설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SOC를 비롯한 산업기반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플랜트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플랜트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2의 중동' 건설시장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이점도 가

2) 아프리카 53개국 중 11개국이 산유국으로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등은 기존 에너지 자원부국이며, 앙골라, 수단, 적도기니 등은 신흥 산유국이다.

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틈새 수출시장으로서 잠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는 구매력이 낮아 국제 상품무역에서 사실상 외면당해왔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심하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미개척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아프리카는 세계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 10억 명 가운데 휴대폰 사용인구가 2009년 현재 3억 7,000만 명을 돌파했고, 향후에는 4.1억 명(2011년), 6.0억 명(2018년)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건설진출,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세계화, 다극화, 네트워크화하는 21세기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국제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UN 회원국(192개국)의 28%(53개국), WTO 회원국(150개국)의 25%(39개국)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 확대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지지 획득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오지의 대륙' 정도로만 인식하여 이 지역 변화의 시그널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자원 확

보와 시장개척에서 그만큼 경쟁국들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경제적 이익추구에만 너무 집착한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이거나 오히려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자원은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에도 매력적인 것이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협력기반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파트너십이 심화되면 이것이 사후적으로 자원확보 등 국익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의의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금력, 진출 경험 등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점국가를 선정,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발원조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원조는 소규모이며 더욱이 '다국가 소액지원'이라는 분산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조방식은 효과성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조예산이 소규모인 상태에서 이를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는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2010년 9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장관급회의(KOAFEC)에서 2012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ODA)규모를 현재

의 2배 수준인 2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뒤지는 규모이다. 제한된 개발원조규모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수의 모범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원조 중점국가 선정에는 수원국의 개발잠재력, 경제협력 수준, 외교적 고려, 한국 개발경험의 적용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과 개발원조 측면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점국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요인(부패 정도·사업의 용이성·인프라·자원부국 여부)과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교역액·투자액·공관 여부·고위인사 방문)를 지수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3]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협력관계는 최근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정부의 관심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급 인사 방문에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전략적 가치는 자원과 관련된 시장진출이라는 점에서 경제규모(GDP), 소득수준 등의 일반적인 경제변수는 제외시켰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경제협력 중점국가로는 가나, 콩고(DRC), 남아공이 선정되었으며, 개발협력 중점국가로는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또는 외교적 고려를 특별히 감안하여 에티오피아를 선정하였다.

가나는 2000년 평화적 정권교체 등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서부아프리카

3) 중점국가 선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반요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에서 1차적으로 적합한 국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5년간 6~7%의 높은 경제성장과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가나는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콩고는 남아공과 함께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막대한 양의 미개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우리와의 경제협력기회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콩고에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카드뮴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고부가가치의 자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칠레'로 불리고 있다. 자원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안한 정치상황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남아공은 석유를 제외한 수많은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보고이자 아프리카의 최대 거점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25%, 사하라이남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이에 달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불안한 치안상황, 흑인우대정책(BEE) 등으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시장잠재력, 인프라, 금융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협력 중점국가로 선정하였다. 에디오피아는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에는 아프리카 53개국이 가입, 제반 지역문제를 협의하는 정치기구인 AU(아프리카연합)와 유엔(UN)의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가 소재하고 있어 아프리카 외교를 위한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아프리카(사하라이남) 국가별 협력 우선순위

순위	국가	정치 경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총점
		부패	사업 용이성	인프라	자원	교역	투자	공관	한국 고위인사 방문	아프리카 고위인사 방문	
1	가나	90.6	84.6	73.3	◎	68.1	81.5	O	O (3)	O (4)	169.6
2	남아공	96.2	100	93.3	◉	97.9	85.2	O	O (5)		164.5
3	DR콩고	15.1	3.8		◉	27.7	55.6	O	O (4)	O (4)	125.6
6	나미비아	94.3	94.2	100	◉	51.1			O (1)		104.9
4	코트디부아르	22.6	28.8	30	◉	53.2	70.4	O	O (1)	O (3)	101.0
7	케냐	28.3	80.8	60		70.2	18.5	O	O (3)		91.6
9	마다가스카르	75.5	63.5	40	◉	48.9	100	O			85.6
10	보츠와나	100	96.2	90	◉	12.8					84.8
5	세네갈	73.6	46.2	70		14.9	14.8	O		O (3)	83.9
12	나이지리아	35.8	73.1	20	◎	95.7	92.6	O			83.4
14	짐바브웨	24.5	42.3	63.3	◉	46.8	29.6	O	O (2)		81.3
17	카메룬	30.2	23.1			76.6	25.9	O	O (1)	O (2)	79.0
8	에티오피아	47.2	76.9	56.7		59.6	3.7	O	O (1)	O (1)	78.8
13	탄자니아	43.4	67.3	26.7		55.3	48.1	O		O (2)	78.2
11	가봉	66	44.2		◎	61.7		O			77.3
16	수단	3.8	50		◎	72.3	37	O		O (1)	70.8
15	잠비아	69.8	86.5	33.3	◉	78.7	22.2				68.1
19	적도기니	9.4	25		◎	85.1		O			59.8
18	말리	54.7	48.1	46.7		40.4				O (1)	57.5
20	모잠비크	37.7	61.5	16.7	◉	34			O (1)		57.5

주: 1. 부패·사업 용이성·인프라·교역·투자는 각 지수를 백분율로 환산(수치가 높을수록 양호)
2. ◎는 석유 ◉는 광물. ( )안은 방문횟수(2008. 1~2010. 5). 교역·투자는 2005~09년 기준
3. 공관 및 자원은 존재 여부에 따라 10점, 고위인사 방문은 횟수당 10점의 가중치 부여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9),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rld Bank(200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Easy of Doing Business Ranking, Doing Business in 2009*; Heritage Foundation(2009), *Economic Freedom Index*;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09-2010*;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각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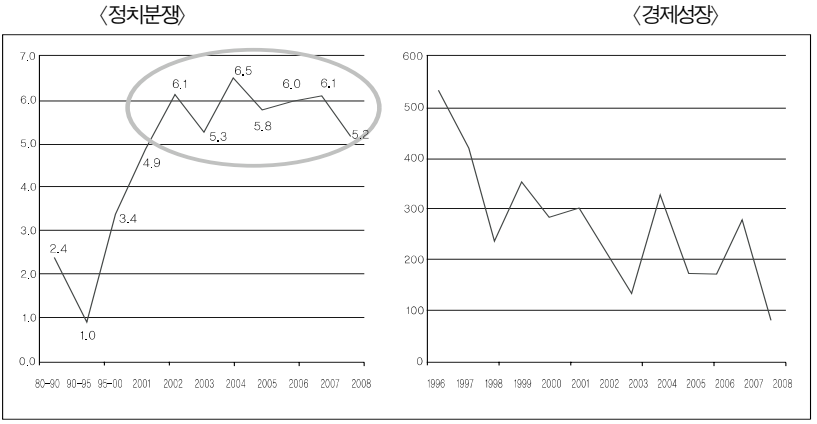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과거 아프리카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것이 국가발전을 가로막았으나,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주요 내전국가였던 앙골라, 콩고(DRC) 등에서도 내전이 종식됨으로써 국가재건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제 등 민주화 분위기가 아프리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한층 더 탄력받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으나 최근의 경제지표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성장이 2000년대 들어 5~6%대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5% 이상의 고성장국가 수가 16개국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그 수가 29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주춤하기도 했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 아프리카의 정치분쟁 및 경제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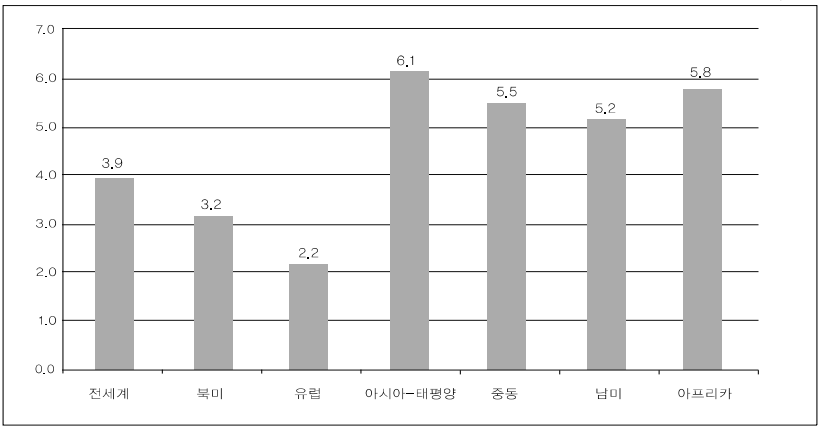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물론 이 정도의 경제성적표로는 아프리카 경제가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53개국 가운데 소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장기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정치적 발전과 함께 개혁·개방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제 아프리카지역도 여타 개도권 경제 못지않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평가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는 아프리카가 2010~20년 동안 5.8%의 경제성장률(연평균)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지역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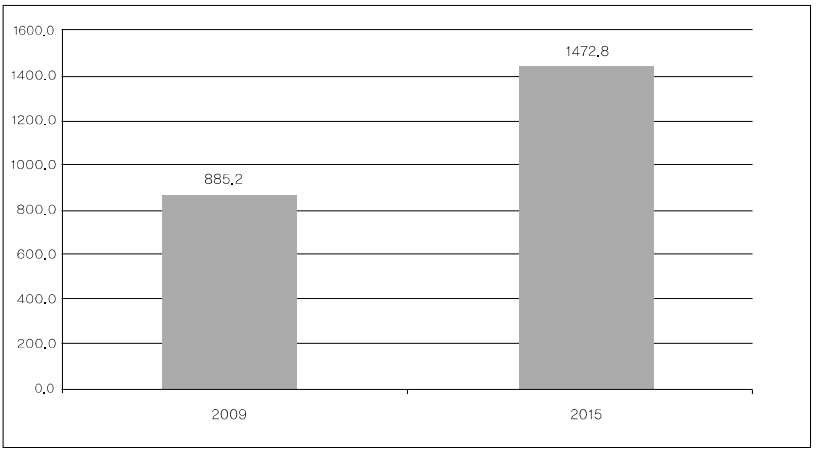
▌그림 2-2 2010~20년 세계 지역별 경제성장 전망 비교 ▌

(단위: %)



또한 IMF(2010)에 의하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경제규모(GDP)가 현재(2009년) 8,800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에는 1.7배 증가한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3. 아프리카(사하라이남) GDP 규모 전망 ▌



자료: IMF(2010), *World Economic Outlook.*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는 한마디로 저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발전적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들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발전과제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아프리카의 기본적인 협력수요로 원조공여국 입장에서 보면 개발원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 인프라 개발

아프리카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열악한 인프라이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아프리카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트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트디부아르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가 넘는다.[5)] 또한 야자유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의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이다. 그러나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6)]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나르는 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다. 이는 열악한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막대한 운송비용은 세계시장으로부터 아프

4) 박영호 외(2007, 2008, 2009, 2010, 2010b).

5) Commission for Africa(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6) 『매일경제신문』(2004. 11. 9).

리카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역내 운송비용은 아시아 지역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자본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항만, 전력 등 경제인프라 확충을 통한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급선무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역내시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럽열강의 식민통치과정에서 53개의 작은 국가단위로 분할(fragmentation)되었고, 그 결과 단일경제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으로 파편화되었는데,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역내 인프라 구축이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들은 해안지역과 멀리 떨어진 채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역과 공업화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내륙국가들이 설령 공업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 실어나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수송비용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 통합은 내륙국가에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림 2-4]는 세계 주요 지역별 역내 교역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 그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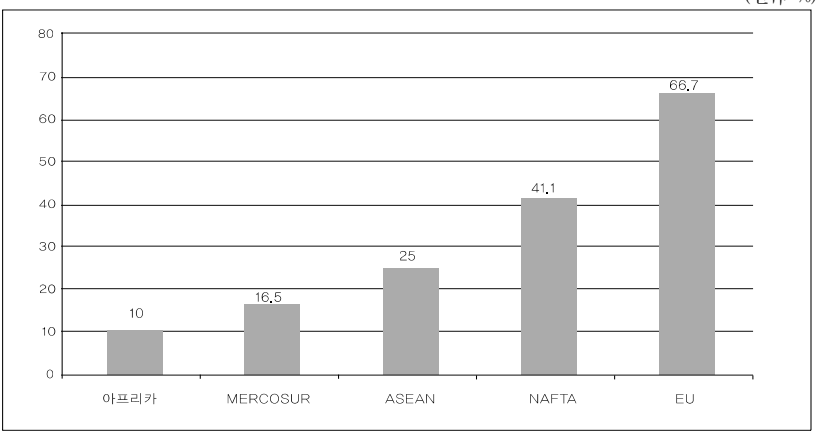
아프리카는 농업인구 비중이 60~70%[7]에 달하고 있으며, 절대빈곤인구의

7) 아프리카 농업인구 비중에 대한 통계는 60~70% 범위 내에서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90% 가까이가 농촌에 거주하며 전근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농업문제는 빈곤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농업발전이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사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농업부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농업이 위기에 처하면 아프리카도 위기에 처한다'는 표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빈곤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 나아가 농업발전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가산업 전반에 연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2-4.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비중(2008년 기준)

(단위: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표 2-1. 아프리카 농업인구 및 GDP 대비 농업 비중

(단위: %)

구분	농업인구 비중	GDP 대비 농업 비중
세계 평균	41	5.8
개도국	49	10.3
아프리카(SSA)	70	16.2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런데 아프리카 농업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후진성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은 관개시설 확충, 신품종 개발, 비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식량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온 반면에, 아프리카는 제반 기초여건의 미비로 여전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식량생산성이 4배 정도 증가하여 2005년에는 4.5톤/ha에 달했고, 남아시아와 중남미 역시 2~3배의 획기적인 식량생산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의 식량생산은 지난 40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8)]

농업 인프라에서도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생산농지 비중은 고작 4%로 남아시아 39%, 동아시아 2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강우량 등 기후여건에 따라 농업생산이 크게 좌우되고 있어 농산물 작황이 매우 불안하다. 이러한 요인은 불안정한 식량공급으로 이어져 '구조적 기아'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비료 사용에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지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남아시아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세한 농지규모 하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비료 투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아프리카에는 농산물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비료 사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소한 농지면적, 열악한 관개시설, 비료부족 등 제반 농업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아프리카의 곡물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곡물생산 수준은 전 세계 평균은 물론이고 남아시아와 중남미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농업 저개발 및 농업생산성 저하는 곧바로 식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8)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열악한 자연조건, 농촌 인프라 및 정책의 미비, 영농기술 부재, 농기계 보급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산물 수입량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는 농산물 순수출국이었다. 그러나 높은 인구증가로 식량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 반해 식량생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1970년대 후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농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와 같이 기초식량 수요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상황에서는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여러 영역에 걸쳐 고착화되어 있지만, '에너지 빈곤' 이야말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사정은 세계에서 최악인데, 현재 10억 명 인구 중 5억 5,000만 명의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심각한 전력난은 산업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위생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구조적 빈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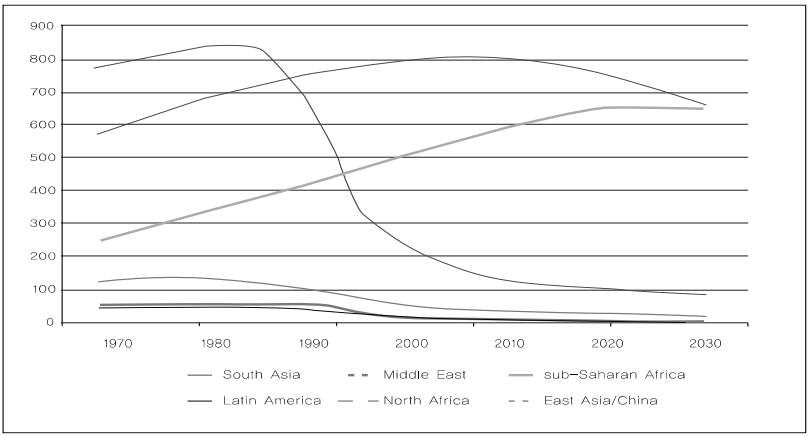
아프리카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전기사정은 더욱 열악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부모들은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은 숙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전기사정이 열악한 이유는 이 지역 마을들이 지리적으로 넓게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발전소로부터 각각의 거주지역까지 송배전망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은 이러한 전력공급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9] 이렇게 농촌지역 마을이 산재해 있어

9) Stephen Karekezi & Waeni Kithyoma(2002), "Renewable energy strategies for rural Africa: is a PV-led

생기는 전력공급문제는 촌락 구성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보다는 서부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10)

그렇다고 해서 도시지역의 전력사정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 전력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잦은 정전으로 가계활동은 물론 산업활동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많은 전문가는 오는 2050년에도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2-5]는 아프리카의 전기사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개도국 지역별 전기사정(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전망▐



자료: World Bank(2009), "Africa Energy Poverty," G8 Energy Ministers Meeting 2009.

심각한 전력난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비즈니스 리스크이다. 외국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열악한 전력사정이 기업활동에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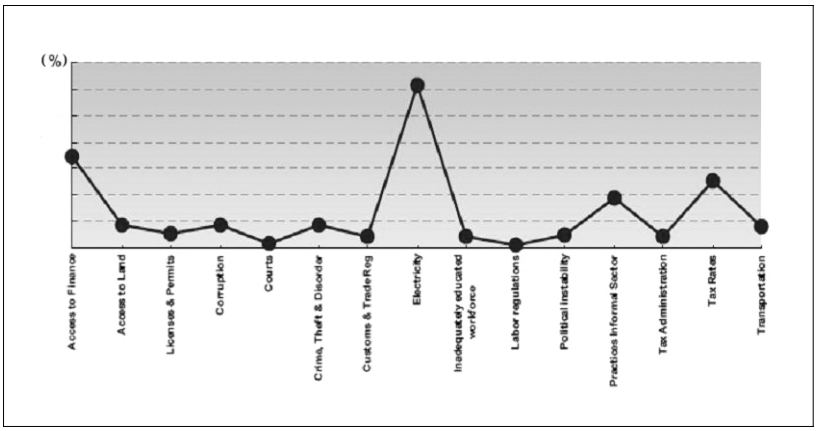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strategy the right approach for providing modern energy to the rural poor of sub-Saharan Africa?" *Energy Policy* 30, p. 1071.

10) *Ibid.*

고 인식하고 있다. World Bank의 Enterprise Survey에서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1만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외부환경요소로 정전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5개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은 정전으로 인해 총매출의 5%를 상회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관공서와 기업들은 소형 발전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6. 아프리카 내 기업활동의 제약요인

(단위: %)



자료: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이러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체에너지원 개발로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는데,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이, 그리고 사하라이남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특히 농촌지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농촌마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지역으로까지 송배전망을 설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설령 전기공급이 가능하더라도 아프리카 빈곤층은 전력요금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을 벌채하고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에너지원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에너지 빈곤해소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다.

라. 환경문제 해결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환경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가령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는 식량생산을 감소시켜 식량난을 유발함으로써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높은 아동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위생시설과 영양결핍,[11] 말라리아, 오염된 식수에서 오는 수인성 질환 등으로 대부분이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식량증산을 통한 영양개선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환경문제에 귀착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2]는 아프리카 환경문제가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뭄과 사막화는 농업생산

11) 아프리카(SSA)의 영양실조인구 비중은 무려 33%로 개도국 평균치(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경우 영양실조인구 비율은 55%에 달하고 있다.

감소에 따른 식량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 식량폭동 등 정치적 소요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12] 물부족은 지역(부족) 또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부족한 수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표 2-2.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주요 영향

5대 환경 리스크	주요 영향
사막화	농업생산 감소 → 식량부족·기아인구 증가 → 식량가격 폭등(식량안보 위협) → 정치사회적 불안 농업생산 감소 → 식량난 → 영양실조 → 사망률 증가 농경지 감소 → 산림 개간(벌목) → 산림 파괴 → 자연생태계 파괴
물부족	수자원을 둘러싼 내전 및 국가 간 분쟁 → 지역정세 불안
산림파괴	온난화 → 이상기온 → 작황 불안 및 식량생산 감소
환경오염	질병 확산→ 사망률 증가
생태계 파괴	관광산업 타격(SSA 국립박물관 동물의 25~40%가 사라질 우려)

자료: 필자 작성.

아프리카의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13] 역시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MDG-7)은 안전한 식수공급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데다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도시의 슬럼화 등으로 심각한 식수오염문제에

12) 전 세계 식량부족국가(86개국) 가운데 아프리카가 43개국이며,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니제르, 세네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13)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도국의 빈곤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189개국 정상들이 UN에서 채택한 의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8개 목표와 그에 따른 21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는 안전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14] 2009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약 3.4억 명이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농촌주민(주로 부녀자)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평균 6㎞를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15] 이런 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는 MDG-4(유아사망률 감소), MDG-6(질병 퇴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MDG 목표와 환경과의 연관성

MDG	환경문제와의 연관성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1) 기후변화, 가뭄, 사막화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파괴하고, 이것이 농업생산 감소와 식량부족을 초래 2) 식량부족은 영양실조, 빈곤 및 기아 문제를 더욱 악화 3) 영양실조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사망률 증가로 이어짐.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1) 생활환경오염과 관련한 질병으로 잦은 결석 2) 특히 수질 악화에 따른 수인성 질병은 학습잠재력을 크게 저하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1) 환경문제로 여성의 가사노동 강도가 더욱 증대 - 수질오염, 산림 파괴, 사막화 등으로 더욱 먼 곳까지 가서 식수와 땔감을 구해야 함(아프리카 여성은 물을 얻기 위해 평균 6㎞를 걸어야 함). 2) 나무 등 바이오매스의 과다한 사용(주로 요리)으로 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데, 이는 여성의 호흡기 질환 및 조기사망으로 이어짐. - 아프리카 농촌지역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바이오매스 비중이 90% 이상
4. 유아사망률 감소	1) 설사, 콜레라 등 물과 관련된 질병이 아동사망의 주요 원인 2)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는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300명의 아동이 사망

14)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15) Commission for Africa(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표 2-3. 계속

MDG	환경문제와의 연관성
5. 모성보건 증진	1) 자연환경 악화에 따른 과도한 가사노동이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 2) 수인성 질병 등 환경 관련 질병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
6. 질병 퇴치	1)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질병 가운데 20% 이상이 환경문제와 관련 2) 기후변화(기온상승)로 말라리아 등 질병 확산
7. 지속가능한 환경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의 관리가 중요 2) 안전한 식수 보급과 기본 위생시설 향상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3) 슬럼지역 및 빈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1) 외화소득을 위한 불법 벌목 및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산림 파괴 2) 자원개발의 혜택이 일부 권력층에 집중됨으로써 거버넌스 문제 악화

자료: 필자 작성.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아프리카 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적자본 개발이다. 아프리카에는 1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정작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16] 이는 국가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소프트엔진'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개발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적자본 형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질적으로 향상된 인적자본은 국민적 자립과 국가역량 배양을 통한 국가시스템 유지,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

16) 오늘날 아프리카의 인적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식민지적 유산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식민통치기간 동안 아프리카인들은 교육의 기회와 조직체의 책임자 자리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국가경영의 경험을 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독립 이후에도 국가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교육과 훈련이라는 투자를 통해 축적되며, 이것은 노동의 질적 향상, 즉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적 역량 강화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국가발전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사적으로도 잘 입증되었다. 한국 경제발전의 일등공신 역시 교육과 이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은 인적자본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산업인력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교육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문맹률은 66%(2008년)로 세계 다른 지역과 견주어볼 때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핵심적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제국은 숙련노동력, 즉 훈련된 기술 및 전문분야의 인력은 크게 부족한 반면에 미숙련노동력은 공급과잉상태로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대량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전문기술인력과 의사 등 고급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도 심각한 상황인데, 토니블레어(Tony Blair) 영국 전 총리가 주도하여 설립한 아프리카위원회의 연구보고서(2005)[17]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연간 7만 명 정도의 고급 또는 숙련 노동력이 선진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비아의 경우에는 최근 전체 1,600명의 의사 가운데 400명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Commission for Africa(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1) 정치동향

1957년 독립 이후 가나[18]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와 체제붕괴로 인해 수십 년간 정국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1년 로링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24년간 다섯 번의 쿠데타와 아홉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다. 독립 당시에는 개발도상국 중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로 꼽힐 정도였지만 정국혼란으로 인프라가 파괴되고 신규투자가 중단되면서 인프라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가나는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2000년 아프리

18)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Gold Coast'라고 불리었으며, 1957년 독립 이후에는 9~10세기 아프리카에서 융성했던 고대 가나제국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가나로 정하게 되었다.

카 국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가나는 2008년에 또 다시 여야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2008년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민주회의(NDC: 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대통령 후보였던 밀스(John Atta Mills)가 여당인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의 아도(Nana Akufo-Addo) 후보를 0.5%의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19] 여당과 야당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했지만 가나 전국에서 소요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져 가나 국민의 민주의식이 성숙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

이로써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가나를 통치해왔던 쿠푸어 대통령과 NPP는 집권기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등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21] 실제로 8년간 가나를 집권한 NPP의 부정부패문제는 2008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였으며, 현재는 전 정권에서 장관직을 수행한 고위관료들에 대해 형사처분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밀스 대통령이 이끄는 가나 신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일부 지역의 인종갈등문제[22]는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19) 의회 선거에서도 야당인 NDC가 전체 230의석 중 114석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등장했다.

20)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Ghana(2009),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 2008– Final Report.*

21) 그러나 쿠푸어(Kufur) 전임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로링스 대통령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으로 선출된 쿠푸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3선 금지, 국민 직접선거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22) 가나는 아칸족, 에웨족, 가족, 모쉬-다곰바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도 기독교 69%, 이슬람교 16%, 토착신앙 8%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종족과 종교가 공존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인종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표 3-1. 가나의 근대 약사

1957년 영연방에서 독립
1960년 제1공화국
1966년 제2공화국: 군사정권 수립
1979년 제3공화국: 민간으로 정권이양
1981년 J.J. Rawlings 대통령 정권 출범
1993년 제4공화국: J.J Rawlings 대통령 재선
2000년 제5공화국: 여야 정권교체로 John Kufuor 대통령 선출
2004년 John Kufuor 연임 성공 대통령선출
2008년 John Atta Mills 대통령 선출: 여야 정권교체

2) 경제동향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가나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서부아프리카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후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적극적인 경제육성정책에 힘입어 5~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며 성장일로를 걷고 있다. 주요 산업은 광업과 농업으로 금, 다이아몬드, 망간 등의 광물자원과 카카오, 커피, 파인애플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카카오와 금은 전 세계 생산량의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데 이는 1990년대까지 계속된 정정불안으로 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통신 및 건설 관련 서비스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3]

가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성장률이 4%로 낮아졌지만 2005~08년 동안에는 6~7%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

23) EIU(2010c), *Country Profile: Ghana*.

수준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71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나 국민의 생활고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인데, 2009년 초반에는 정부재정지출 확대,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보조금 철폐 등으로 21%에 육박했다. 곡물과 식료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등을 민생 안정정책으로 내놓으면서 2010년 2월에는 인플레이션이 13%대로 낮아졌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표 3-2. 가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명목 GDP	백만 달러	10,735	12,742	15,022	16,652	15,497
실질 GDP성장률	%	5.9	6.4	5.7	7.3	4.0
재정수지/GDP	%	-2.1	-7.8	-9.1	-8.7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5.1	10.9	12.7	13.0	–

자료: EIU(2010c), *Country Profile: Ghana*.

나. 산업구조

가나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넓은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농업부문이 고용과 수출의 각각 60%,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카카오, 커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이며, 특히 카카오는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쌀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농업프로그램[24]이 시행 중이며 이

24) 2009년 6월 북부 3개 지역(Northern, Upper East, Upper West)에서 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Emergency Initiative'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가나에서도 빈곤지역으로 분류되는 북부 지역의 식량생산 확대 및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국제개발청(USAID)이 2년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프리카 미곡센터, 국제토지농업개발센터, 사바나농업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에 따라 쌀 경작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가나의 쌀 수입은 2억 달러에 달하는 등 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업과 함께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은 광업으로 총수출의 37%, 재정수입의 12%,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광물은 금, 다이아몬드, 망간 등이 있으며, 특히 금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많다. 최근에는 금의 국제시세가 계속 높아지면서 신규 광산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금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망간은 매장량이 약 100만 톤으로 세계 11위이며 남부지역(Nsuta)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다. 보크사이트의 경우에는 매장량(1.2억 톤)에 비해 인프라와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생산량(44만 톤)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운송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획기적인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표 3-3. 가나의 산업구조

(단위: %)

구분	1988년	1998년	2007년	2008년
농업	49.6	36.0	33.9	33.5
공업	16.6	25.3	25.3	25.3
(제조업)	(9.6)	(9.0)	(7.1)	(6.3)
서비스업	33.8	38.7	40.8	41.2

자료: EIU(2010c), Country Profile: Ghana.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통신, 건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에는 서비스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농업을 제치고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가나 정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섬유, 식음료, 목재 등의 경공업이 조금씩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조업

전반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2008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나의 제조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꼽을 수 있다. 제조업 설비 투자와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특히 전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경제개발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적 안정을 일구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범국가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IMF의 지원으로 제1기 빈곤해소전략(GPRS-Ⅰ: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1)을 수립하여 거시경제 안정과 빈곤감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제2기 빈곤해소전략(GPRS Ⅱ: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2)을 수립하였는데 민간부문 육성, 수출촉진, 농업생산성 향상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 국가발전계획들은 농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함으로써 가나의 경제성장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5]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9년 6월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5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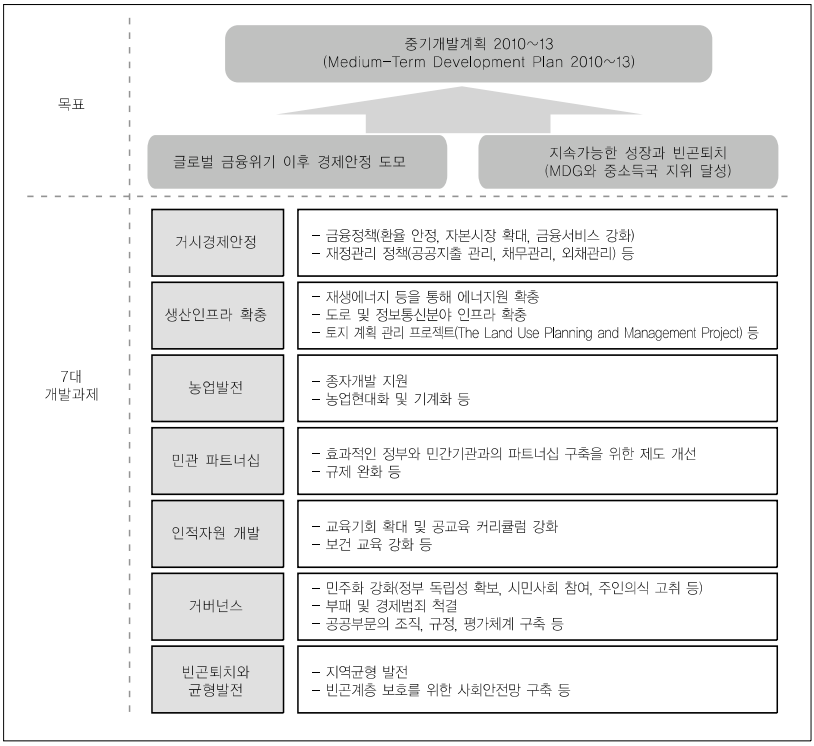
그러나 가나의 국가발전전략이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빈곤퇴치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 등 성장지표는 개

25) UN(2007),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nual Ministerial Review– The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GPRS II).*

선되었지만, 절대빈곤인구 비율이 30%로 빈곤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의 격차도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데, 남부 대도시지역은 상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북부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다.

2010년에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중기(2010~13) 개발계획(Medium Term Development Plans)을 수립하였는데 거시경제 안정, 인프라 확충, 농업개발 및 농업현대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PPP)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빈곤 및 소득불균형 해소 등 7대 개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3-1. 가나의 중기(2010~13년)개발계획 개요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라. 대외경제

1) 교역 현황

가나의 주력 수출상품은 코코아와 금으로 이들이 전체 수출(2009년)의 각각 30.2%,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코코아 수출은 전 세계에서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많다.[26] 가나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며, 코코아 수입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가 가나 전체 수출액(2009년)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나의 최대 수입선은 나이지리아인데 이는 대부분의 원유를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1.2%에 달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그 비중이 9.3%로 낮아졌지만 비산유국인 가나에 있어 국제유가의 향배가 경상수지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표 3-4. 가나의 수출·입 현황(2006~09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2,794.6	3,027.7	4,074.7	4,229.7
코코아	947.2	910.8	1,152.2	1,278.1
금	943.8	1,247.4	1,751.0	1,812.0
목재	151.6	184.3	234.8	168.6
수입	4,979.3	5,722.7	7,834.1	6,003.5
경상수지	-567.2	-1,536.0	-2729.3	-1,032.5
경상수지/GDP(%)	-5.9	-13.6	-21.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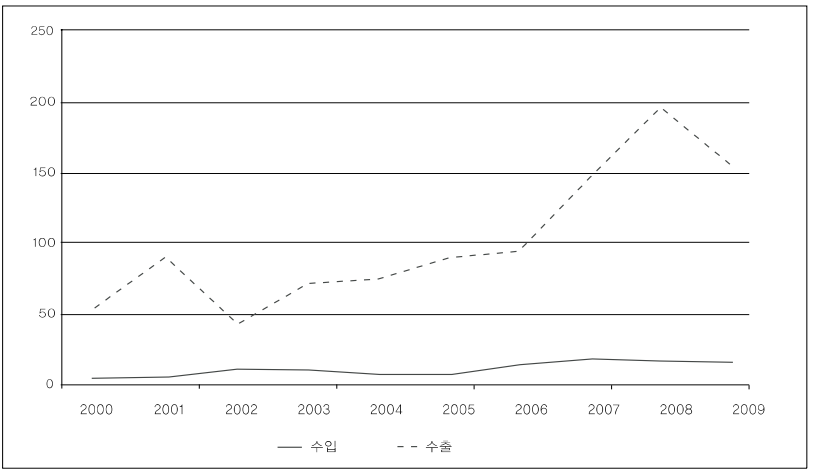
자료: Bank of Ghana.

26) FAO, 2007년 기준.

2) 한국과의 교역

우리나라와 가나가 1977년 수교를 맺으면서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9년 기준 가나는 우리나라의 제91위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는 가나에 1억 5,4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7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가 가나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기타 섬유제품 등이고 산식물과 동제품, 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그림 3-2. 한·가나 교역 현황▐



자료: 무역협회.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콩고[27]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1998

~2003년 내전기간 동안에는 무려 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500면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과도정부를 구성함으로써 6년간의 내전과 이웃국가들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2006년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어 합법적인 의회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으로는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셉 카빌라가 당선되었다.[28] 2011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한, 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우세하다.[29]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성공할 경우 2016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콩고는 과거와 달리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무정부 폭력사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원벨트인 동부지역[30]에서는 반군과의 무력충돌 등 국지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앞으로 콩고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낸다면, 많은 외국자본이 몰려올 것이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 국명이 콩고공화국(1960년) → 콩고민주공화국(1964년) → 자이르공화국(1971년) → 콩고민주공화국(1997년)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참고로 콩고 강을 사이에 두고 콩고공화국(RC: Republic of Congo)과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이 이웃하고 있는데, 콩고공화국은 프랑스,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통상 수도의 이름을 붙여 전자를 브라자빌콩고, 후자를 킨샤사콩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28) 대선에서 카빌라는 수도인 킨샤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시에서 밤바(당시 부통령으로 대립관계)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지방 농촌지역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정권 획득에 성공하였다.

29) 그러나 카빌라의 정치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 소도시 위주의 미약한 지지기반과 과반수에 크게 미달하는 국회 의석 수 등으로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원벨트인 동부지역은 정세불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 동부지역, 특히 우간다와 국경지역인 Ituri 지역과 르완다·우간다와 접경하고 있는 Kivu 지역은 여전히 정정이 불안하다. 콩고와 르완다는 2007년 11월 「나이로비 협정」을 체결, 콩고 동부지역 반군 무력화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한 바 있으나, 정치적, 인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글상자 3-1. 콩고 내전(1998~2003년)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지속된 콩고 내전은 종족갈등,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변 8개 국가가 관여하는 국제대리전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약 400만 명이 사망하였다. 희생자 수와 개입국가 수가 많아 '아프리카의 1차 세계대전(Africa's First World War)'이라고 불리고 있다. 콩고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얻기 위해 정부군, 반군 그리고 이들의 후견자인 외국군대(우간다군, 르완다군 등)가 서로 혈전을 벌였다.

콩고 내전은 1965년부터 32년 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모부투(Mobuto) 정권과 이에 대항한 로랑 카빌라(현 대통령의 아버지) 반군세력 간의 정권 쟁탈전에서 비롯되었다. 로랑 카빌라는 모부투 정권에 반기를 들고 국내 반군세력과 르완다, 앙골라, 우간다의 투치(Tutsi)족 등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1997년 5월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집권 후 자신을 지원했던 르완다, 우간다를 적대시 했고, 이에 반발한 국내의 투치계 반군단체가 조직돼 1998년 후반부터 정부와 군사적 대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르완다와 우간다가 반군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카빌라 정부는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 등 3개국 정부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음에 따라 6개국 군대가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발전했다.

1999년 7월 분쟁 당사국 6개국이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내전 종식이 기대되었으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력충돌은 중단되지 않았다. 2001년 로랑 카빌라가 측근 경호원에 피살된 직후 6개국과 반군단체는 다시 '철군협정'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UN평화유지군 2,000명이 파견됐다. 2003년 6월 과도정부가 구성됨으로써 6년간의 내전과 주변국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콩고는 막대한 광물자원과 산림자원, 그리고 농산물(열대성 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고 있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내전으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1960년대 콩고는 남아공보다 더 부유했으나 장기독재와 부정부패, 정책실패 그리고 1998년 이후 6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내전과 전쟁으로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이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도 모두 파산상태에 있다. 도로망 파괴로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편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활여건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인구(6,100만 명) 절대다수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161달러에 불과하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13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로 인해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다.[31)]

그러나 최근 들어 콩고 경제사정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내전으로 수십 년간 파탄에 이르렀던 콩고 경제가 2003년 내전종식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안정과 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광산개발 투자 및 SOC 건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물 생산도 내전종식과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과 코발트의 생산량은 2001~07년 사이에 각각 4배, 1.5배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콩고 경제가 최근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콩고에 있어 자원은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면서 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나[32)] 2003년 내전종식을 계기로 광업부문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콩고 경제가 정부의 재건 노력과 외국인투자(FDI) 확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2008년까지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외국인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기도 했으나 2010년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광물수요 폭증으로 인해 구리, 코발트 등 광물자원의 국제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콩고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 콩고 정부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SOC 건설을 연계하여 재원확보문제를 해소하면서 외채증가 부담도 피해가는 방식으로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2) 벨기에 식민지배시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이 천연자원을 수탈해갔고, 1960년대 초 독립 이후에는 모부투(Mobutu) 정권의 장기(30년) 독재, 그리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치르면서 정치인, 내외국계 군대, 서방 광업회사, 인접국 정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콩고의 자원을 약탈해왔다.

콩고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콩고의 경제성장을 이끌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광물거래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광물자원은 콩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33] 콩고의 광업은 전체 GDP의 25%, 정부재정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화의 주소득원으로서 전체 수출소득의 무려 3/4 정도를 창출하고 있다.

표 3-5. 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제규모(GDP)	백만 달러	7,103	8,785	9,972	11,668	10,780
실질 경제성장률	%	6.5	5.6	6.3	6.2	2.7
인플레이션	%	21.4	13.2	16.7	18.0	44.7
수출(fob)	백만 달러	2,071	2,931	6,143	6,585	6,500
수입(fob)	백만 달러	3273	2,892	5,257	6,711	6,900
외환보유액(금 제외)	백만 달러	131	155	181	78	1,000
대외부채	백만 달러	10,600	11,201	12,283	13,400	13,500
환율	FC: US달러	473.9	468.3	516.8	559.3	809.8
구리 생산	천 톤	26.4	99.1	96.4	335.1	309.2
코발트 생산	천 톤	7.3	14.6	17.3	42.1	55.8
다이아몬드 생산	백만 캐럿	32.6	28.6	28.3	20.9	18.0

자료: EIU(2010a).

다. 주요 산업

1)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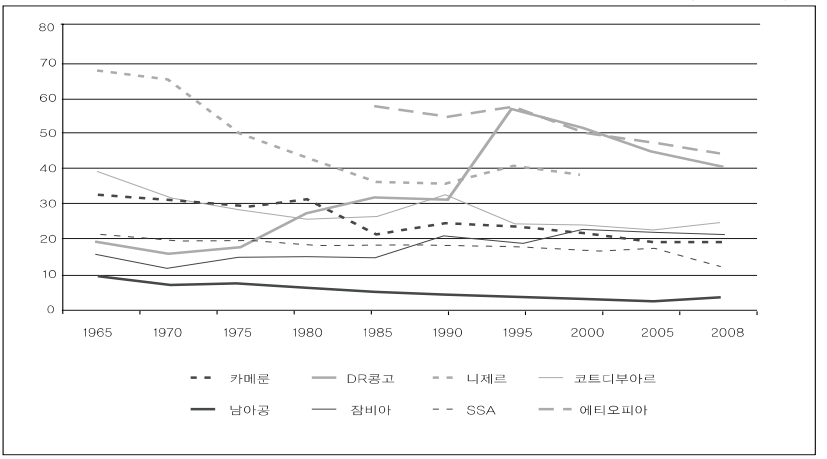
농업은 콩고의 주요 산업으로 인구의 70%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이

33) 콩고 광물자원의 거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콩고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적인 광물거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다. 독립 직후 GDP의 약 20%밖에 되지 않던 농업의 비중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폭 증가했다. 2008년 기준 농업부문은 GDP의 40.2%에 달한다. 이는 아프리카(SSA) 평균 12.3%를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콩고의 GDP 대비 농업 비중은 아프리카지역에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높다(그림 3-3 참고). 특히 지난 40년간 SSA 지역에서 농업의 GDP 비중이 평균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면 콩고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림 3-3. 콩고의 농업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북부와 남부 Kivu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대규모 상업농장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체되면서 대부분의 콩고 농가는 영세소농(subsistence farming)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소규모 자영농들은 DR콩고의 주식(主食)인 카사바를 비롯해 옥수수, 요리용 바나나(plantains), 땅콩, 쌀, 바나나 등의 식용작물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담배, 커피, 고무, 카카오, 야자기름 등 상업용 환금작물(cash crop)의 생산 및 수출액은 꾸준히 감소하

였다.[34] 이는 아프리카 주요 농업국들이 수출용 상품작물의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콩고는 농업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체 토지의 34%가 경작 가능한 농지로, 이 중 현재 이용되고 있는 10%의 경작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지구상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한 농경지(additionally available cropland in the world)'의 6.8%에 해당하는 크기다.[35] 또한 콩고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량이 많은 콩고강과 1,500mm 이상의 연평균 강수량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라는 지리적 한계를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후조건, 풍부한 노동력, 평화정착에 따른 농업분야 개발의 활성화로 미루어보아 콩고의 농업발전은 낙관하기에 충분하다.

표 3-6. 콩고와 SSA 지역의 농업여건 비교(2006~08년 기준)

구분		콩고	SSA 평균
자연환경 여건	경작 가능 경지 비율(%)	34	7
	강수량(mm/year)	1,566	-
경제산업 여건	관개시설 갖춘 농지 비중(%)	0.1	4
	곡물 수확량(kg/ha)	771.6	1248.12
금융자본 여건	비료 소비량(kg/ha)	4.55(2006) → 0.05(2007)	10.88(2006) → 9.4(2007)

자료: FAO(2009), *Statistical Yearbook*;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콩고는 농업 저성장의 악순환

34) 2007년 현재 농산품 수출액 비중은 GDP의 1.7% 정도이다.

35)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전 세계에서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경지의 약 60%가 SSA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아프리카 농업 전망에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DR콩고에서는 6,600만ha에 달하는 면적이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에 빠져 있다. 콩고는 면화, 고무, 커피 등 열대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저개발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인프라의 낙후성, 금융자본 부족, 농업기술의 후진성, 농산물 유통시장의 부재 등이 콩고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표 3-6]에서도 보듯이 관개시설을 갖춘 농지 비중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콩고는 곡물수확량(771.6kg/ha), 비료사용(0.05kg/ha) 등에서 아프리카(SSA)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어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저투자 → 농업생산 위축 → 식량부족 → 농업의 저개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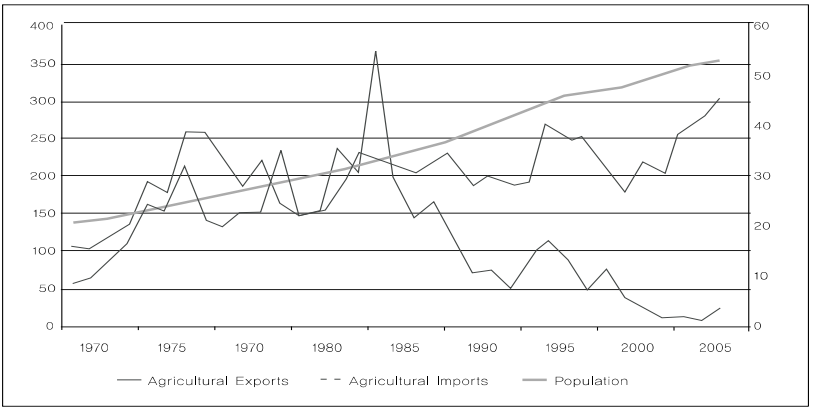
콩고의 농업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은 1990년 초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1987년에는 농산물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카사바, 채소, 요리용 바나나, 콩 등의 일부 자급자족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으로 식량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3-4 참고).[36] 이는 콩고 농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기아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75%에 이르는 4,400만 명의 콩고 국민들은 식량불안(food insecurity)과 영양실조(undernourishment)로 고통받고 있다.

콩고 GDP의 40.2%를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발전은 비단 경제성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4,400만 명의 빈곤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콩고 정부는 농업 저개발과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업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37]

36) 내전종식 이후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7년 DR콩고의 카사바 생산량은 1990년보다 20% 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밀, 쌀, 육류, 생선은 주요 수입품목에 해당된다.

37)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개발프로그램으로는 'Programme Detaille pour le Developpement de l'Agriculture

▌그림 3-4. 콩고의 농산물 대외무역 추이 ▌



자료: Rapport National d'Investissement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2008).

2) 광업

(1) 자원개발 잠재력

콩고는 천연자원의 세계적인 보고다. 풍부한 광물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을 골고루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콩고는 한반도의 11배에 달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단, 알제리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나라다. 그리고 콩고는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동으로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남으로는 앙골라, 잠비아, 서쪽으로는 콩고공화국(브라자빌콩고), 북으로는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모두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콩고에는 세계 2위의 수량을 자랑하는 콩고 강(약 4,700km)이 있어 '아프리카의 물 탱크'라고 불릴 만큼 아프리카 최대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토의 상당 부분이 열대우림지역이기 때문에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산림자원(세계 3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콩고는 수력, 목재, 제지업 및 농업 개발 잠재력도 상

Africaine en RD Congo'(PDDAA)가 있다.

당하다고 볼 수 있다.[38)]

그러나 무엇보다도 콩고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자원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콩고는 남아공과 함께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이르'라는 옛 이름으로 익숙한 콩고에는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부존하고 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콩고에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카드뮴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고부가가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칠레'라 불리며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 광산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코발트[39)]와 다이아몬드의 경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매장 비중이 세계 최고로 각각 48%, 26%에 달한다. 동은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탄탈룸, 셀레늄, 아연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40)] 최근에는 휴대폰 제조에 필수원료인 콜탄(coltan)[4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물자원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표 3-7. 콩고의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분	코발트	동	다이아몬드(공업용)	우라늄
매장량	340만 톤	500만 톤	1.5억 캐럿	1,800톤
점유율(세계 순위)	48.6%(1위)	1.5%(13위)	26.1%(1위)	-

자료: 외교통상부(2008. 3), 「대아프리카 에너지 자원외교 강화」, 회의자료.

풍부한 광물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콩고의 광업활동은 그동안 크게 저조했

38) 김승민(2007. 10),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자원 잠재력과 경제발전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39) 항공기 등 산업용 기기 생산에 사용되는데 콩고가 세계 1위의 코발트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40) 매장량은 초보적인 기술과 방법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첨단기술로 조사할 경우 보다 많은 광물매장량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국광물자원공사(2009. 7), 「희망의 대륙: 아프리카 자원여행」).

41) '콜탄'은 휴대전화의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탄탈룸의 원료이며 세계 콜탄 매장량의 80%가 콩고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내전으로 인한 정정불안이 광물생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광업 생산시설 대부분이 파괴되는 등 광업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전 이전에 GDP의 25%를 차지했던 광업부문의 비중이 한때 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정정불안은 외국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이어졌고, 외국의 선진 광업기술이 도입되지 못하여 콩고의 광업기술은 낙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활동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국영 광업기업(Gecamines)의 재정악화가 가세하면서 콩고의 광업은 최근까지도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자원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안한 정치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외국 광물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광업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콩고의 광물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코발트와 다이아몬드이다.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36%, 다이아몬드는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과 탄탈룸 등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콩고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국영기업, 국영·민간 합작기업, 민간기업, 소규모의 영세채광업자(Artisanal Mining)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GECAMINE 등 국영기업[42]은 주요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계 광업회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과 파트너협정을 맺고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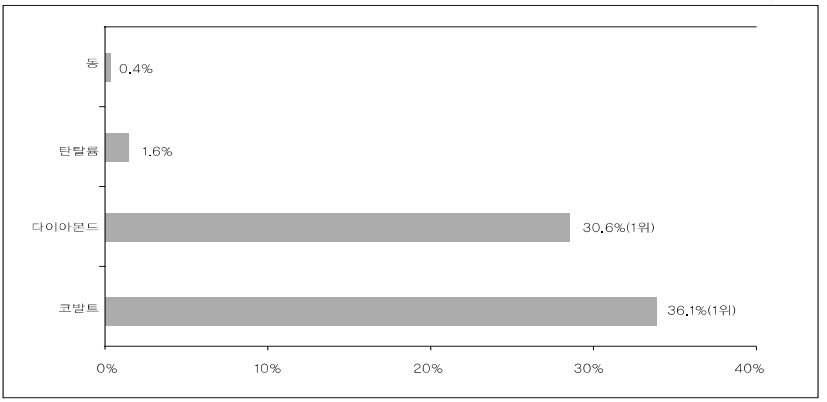
앞으로 콩고의 광물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빌라(Joseph Kabila) 정부[43]는 낙후된 광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부 간섭 최소화, 각종 투자촉진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광산기업들의 콩고 광업부문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2) 콩고 국영 광업회사로는 동과 코발트 생산업체인 GECAMINE,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MIBA, 금 생산업체인 OKIMO 등이 있다.

43) 2006년 12월 독립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치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확보한 카빌라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증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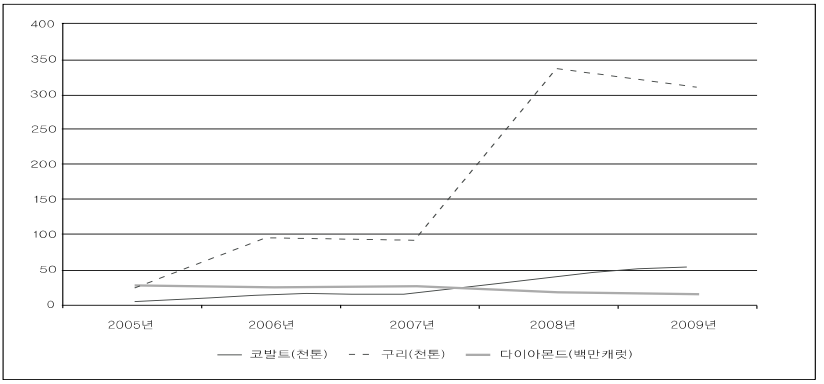
▌그림 3-5. 콩고 주요 광물생산의 세계적 비중 ▐

(단위 : %)



주: 1)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이다.
2) 다이아몬드와 코발트는 2007년, 동과 탄탈륨은 2004년 생산량 기준.
자료: USGS(2008),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8;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통계.

▌그림 3-6. 콩고의 주요 광물생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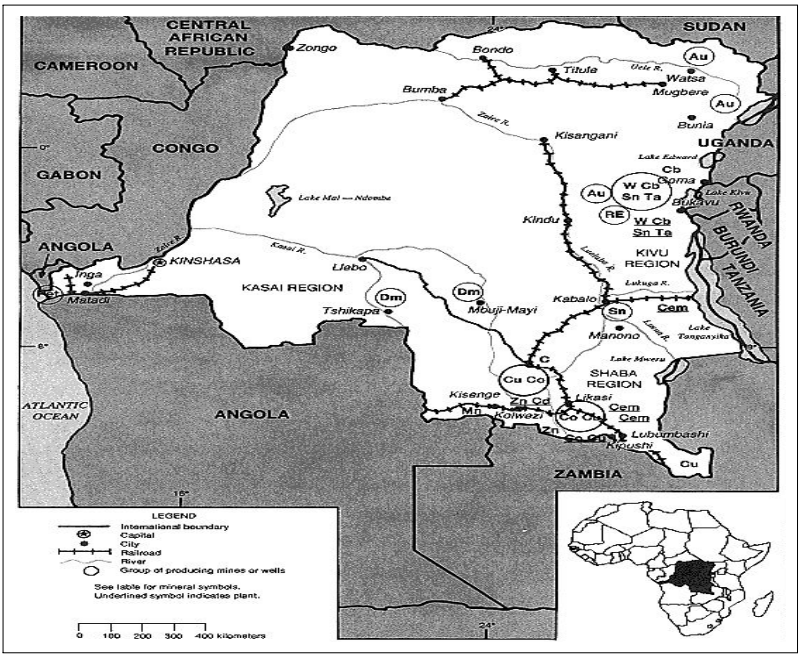


자료: EIU.

콩고의 '자원벨트'는 동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 킨샤사(Kinshasa)가 위치한 서부지역과 콩고공화국(브라자벨)에 인접한 북부 에콰토르(Equator)지역에는 광산지대가 거의 전무하다. 남부지역에서 잠비아로 이어지는 국경지대에 위치한 동벨트(Copper belt)지역에는 현재 대규모 광산

이 다수 위치해 있어 콩고 광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동부와 남부 지역의 광산들은 콩고 내전에 개입했던 우간다, 루안다, 잠비아, 앙골라와 가까운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44) 다이아몬드와 금은 북부지역과 일부 동부지역에 분산되어 매장되어 있다.

▌그림 3-7. 콩고의 광물자원 분포도 ▐



주: Cu(Copper), Co(Cobalt), Zn(Zinc), Au(Gold), Dm(Diamond), Sn(Tin, 주석), Ta(Tantalum, 탄탈륨(콜탄).

자료: 김승민(2007. 10); US Geological Survey(USGS)(http://www.usgs.gov).

44) 세계적인 동, 코발트 매장지역으로 유명한 카탕가(katanga)지역은 콩고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잠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콜탄, 금, 다이아몬드의 주요 광산들은 콩고 동부의 고마(Goma), 카사이(Kasai), 이투리(Ituri)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와 접경지대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콩고 광물자원을 둘러싸고 주변국 간에 이권다툼을 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결국 콩고분쟁을 국제대리전의 양상으로 발전시키는 데 촉매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분쟁기간 동안 콩고 동부에서 채굴된 콜탄, 금, 다이아몬드 등의 광물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반군 등 군벌들의 무기 구입으로 사용되었고, 아직도 동부 밀림지역의 광산 일부는 반군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승민 2007. 10).

(2) 외국기업 진출 현황

콩고는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가기간산업 부흥을 위해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광업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고 외국인과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점차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외국계 광물 메이저들과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콩고민주공화국 광업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콩고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광업회사에는 First Quantum(캐나다), Anvil Mining(캐나다, 호주), Freeport McMoran(미국) 등이 있다. 이들은 콩고의 국영 또는 민간 광업회사들과의 합작투자 및 단독투자 방식(자회사 설립 등)으로 광산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외국계 기업 중 가장 활발한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First Quantum사로 동 및 코발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Kolwezi 지역은 세계적인 동 매장지(1억 1,300만 톤)로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품위가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8. 주요 외국계 광업회사의 진출 현황▐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최근에는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 9월 중국은 콩고 정부와 총 50억 달러(인프라 구축에 30억 달러, 광산개발에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동, 코발트, 금 개발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도로, 항구, 공항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8년 1월에는 광산재건사업에 30억 달러, 인프라 구축에 6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콩고 자원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표 3-8. 주요국의 콩고 자원개발 참여 현황

국가	회사명	광산 (생산광물)	생산량 (2007년 기준)
캐나다	First Quantum	Frontier(구리)	구리 8,712톤
	Anvil Mining (호주-캐나다 합작	Dikulushi(구리), Kinsevere(구리)	구리 4만 7,633톤
	Simberi Minig	Kakanda(구리)	-
미국	Freeport McMoran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
남아공	AngloGold Ashanti	Mongbwalu(금)	2.93만 온스
중국	Sicomin	Katnaga(동, 코발트)	-

자료: BMI(2008), *DR Congo Mining Report,* Q3; 각 회사 홈페이지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진출여건

내전과 정정불안으로 그동안 광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개발된 광산이 많다. 이는 광업개발의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콩고 정부는 지하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2003년에는 신광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의 폭을 넓혔다. 외국인투자자의 광업권 소유 보장, 국영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투자 장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신광업법」에서는 광업권을 획득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광업권을 독점, 갱신, 양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

보장해주고 있다. 국가에 의한 광물소유권 몰수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광물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배척하고 국영 독점기업을 통해 광업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장악했다. 콩고 정부는 「신광업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광물세제도 도입했다. 현재 콩고 정부가 광업회사에 부과하는 소득세, 로열티 등 광물 관련 세율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다. 소득세의 경우 콩고 정부는 「신광업법」을 도입하면서 50%에서 30%로 인하하였다. 로열티의 경우 채광업자들은 광물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이아몬드의 경우 4%, 귀금속 2.5%, 비철금속 2%, 철광석 0.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다.[45] 이러한 콩고의 「신광업법」은 외국 광업회사들로부터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의 콩고 진출을 촉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이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도 금과 다이아몬드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동부지역에 반군과 정부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여 광산활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UN 평화유지군과 서방사회,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전 진화에 나섰지만, 워낙 정부군과 반군, 부족 사이의 갈등을 골이 깊어 당분간 내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콩고의 투자환경이 국가견실도 미비, 높은 국가리스크 등으로 인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콩고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불안요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내전이 약화되고 정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진출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콩고는 한국의 전력, 항만 등 인프라 건설능력을 높

45) 김승민(2007. 10).

이 평가하고 있어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진출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3-9. 콩고의 광업 SWOT

강점(S)	약점(W)
• 아프리카의 광물부국 • 높은 개방성(신광업법) • 내전종식에 따른 정치적 안정	• 장기 내전에 따른 인프라 파괴 • 광업제도 미비 및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기회(O)	**위협(T)**
• 정부의 광업 진흥의지 • 높은 개발잠재력	• 중국의 광물개발 공세 • 최근 정부의 세금인상

자료: BMI industry Service(2010),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ining Report.*

라. 대외경제

1)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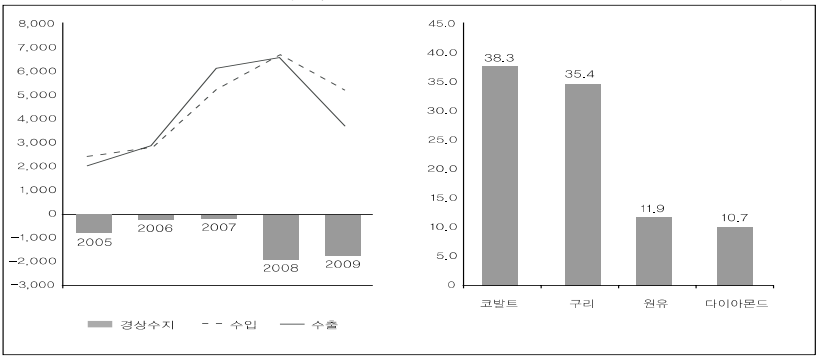
자원부국인 콩고는 코발트와 구리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이 광물들이 전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3%, 35.4%에 달하고 있다. 콩고의 교역패턴은 연도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교역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콩고는 2000년대 초반까지 식민종주국이던 벨기에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였으나, 2008년에는 중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국이 콩고로부터 상당량의 원자재(코발트, 구리 등)를 수입한 데 따른 것이다.

콩고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벨기에의 비중은 2003년 60%에서 2008년에는 15.4%로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3%에서 47.3%로 대폭 늘어났다.

▌그림 3-9. 콩고의 교역 현황 ▌ ▌그림 3-10. 콩고의 품목별 수출비중 ▌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주: 품목별 수출비중은 2008년 기준.
자료: EIU(2010c), *Country Report*.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로 광업부문으로 외국인투자가 몰리고 있으나, 통신 및 건설 분야로의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46)

▌표 3-10. 콩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단위: 백만 달러)

	1995~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	102	256	1,808	1,727	951

자료: UNCTAD, *Country Fact Sheet*.

2) 한국과의 교역

우리나라와 콩고는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1,850만 달러를 수출하고 2,285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가 콩고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구리인데 2009년

46) EIU(2008), Country Profile.

에는 구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콩고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09년에는 구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표 3-11. 우리나라와 콩고의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9,088	22,201	20,024	18,544
수입	225	5,942	2,753	22,848
교역규모	9,313	28,143	22,777	41,392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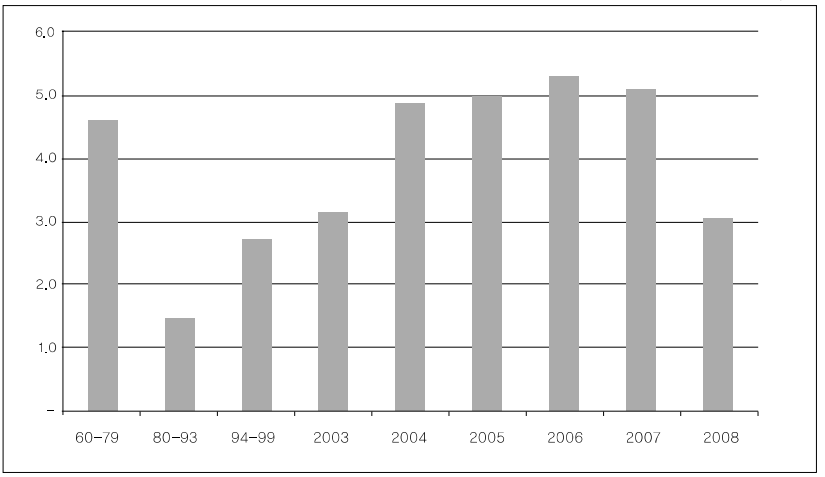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과거 남아공 경제는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로 말미암아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저금리기조에 따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의 호조 요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월드컵 유치가 남아공으로 결정된 2004년 이후에는 SOC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공공지출 및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더해지면서 2004~07년에는 5%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3%대 경제성장으로 경기둔화를 보였는데, 이는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조치, 민간소비 위축[47] 등에 기인한다.

그림 3-11. 남아공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표 3-12. 남아공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	억 달러	2,168	2,428	2,577	2,837	2,768	2,428
1인당 GDP	달러	4,641	5,177	5,438	5,929	5,684	5,823
교역규모	억 달러	1,168	1,349	1,605	1,877	2,062	1,555
수출	억 달러	579	664	762	895	987	544
수입	억 달러	588	684	843	982	1,075	1,011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7)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호조에 따라 연평균 6~7%에 달했던 민간소비가 2008년에는 물가급등 및 부채상환부담 가중으로 3.7% 증가에 그쳤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무려 아홉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지출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이후 경기호조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비율이 급증하였는데, 2008년 말 기준 남아공 가계의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의 76.5%에 달했다.

나. 산업구조

남아공은 제조업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로 선진국형 산업형태를 띠고 있다. 2009년 기준 남아공 경제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 비중은 8.3%에 불과한 반면에 2차 산업 비중은 22.5%, 3차 산업 비중은 69.3%이다. 1차 산업은 광산업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업 비중은 30%이다. 2차 산업은 제조업 비중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주요 제조업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은 금융 및 부동산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31.4%), 도소매업(19.2%), 운송 및 통신(14.7%) 등이다.

표 3-13. 남아공의 산업구조

(단위: %)

산 업	구 성 비
1차 산업	8.3
(농림수산업)	(29.8)
(광 업)	(70.2)
2차 산업	22.5
(제조업)	(74.1)
(전력 · 가스)	(9.9)
(건 설)	(16.0)
3차 산업	69.3
(도소매)	(19.3)
(운송 · 통신)	(14.7)
(금융 · 부동산)	(34.5)
(공공 · 개인서비스)	(31.4)

주: 2009년 기준. ( ) 안은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남아공 중앙은행.

향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 및 기계 산업, 철강 및 가전 등으로 향후 5년간 8%대 이상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표 3-14. 향후 5년간 성장유망산업

성장유망산업	성장 정도
자동차 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	↑
기계산업	↗
가전산업	↗
철강산업	↗

주: (↑) 안은 10%대, (↗) 안은 8%대의 성장 예상.
자료: BMI, EIU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남아공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는 광업으로 남아공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업이 남아공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공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광산업은 남아공 GDP의 7%, 1차 산업의 70%를 차지)을 하고 있다. 광업은 철강 및 자동차 산업 등 2차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남아공은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보고로 백금,[48] 망간, 크롬, 금, 규산알루미늄 등은 세계 제1위의 매장규모로 독보적인 수준이다. 우라늄 또한 주요 부존광물로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생산량 기준으로 10위)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석탄, 티타늄, 바나듐, 질석 등을 비롯한 수많은 광물자원이 다량으로 부존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00여 개의 광산에서 55종류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으로는 호주와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청난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물생산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다. 크롬, 페로크롬, 백금, 바나듐, 질석 등은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망간, 금을 비롯한 다수의 광물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48) 백금은 배출규제장비의 촉매 컨버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 석유정제 산업에서 중요한 특수 광물로 사용된다.

▌표 3-15. 남아공 광물자원의 부존량: 세계적 비중 ▌

구분	매장량		생산량	
	비중	순위	비중	순위
규산알루미늄	37.4	1	59.0	1
크롬	72.4	1	na	na
페로크롬	na	na	46.0	1
금	40.1	1	10.3	2
망간	80.0	1	14.2	2
백금	87.7	1	56.7	1
티타늄광물	29.8	2	19.5	2
바나듐	27.0	2	40.0	1
질석	40.0	2	38.5	1
지르코늄	19.4	2	41.6	2

자료: *South Africa Yearbook(2008/09).*

다. 남아공 시장평가[49)]

남아공은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몇 가지 경제사회적 지표를 통해 신흥경제국들(BRICs와 NEXT-11)의 경제환경과 비교측정해본 결과,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외로 남아공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낙후된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대신흥시장으로 따로 떼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6. 남아공 경제환경 평가 ▌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경쟁력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남아프리카공화국		30.6(1위)	34.1(2위)	33.8(2위)	18.6(1위)
BRICs	중국	43.9	73.7	21.8(1위)	48.6
	브라질	41.7	58.7	42.1	70.5
	러시아	81.1	81.6	38.3	65.6
	인도	46.7	68.7	36.8	72.7

49) 박영호외(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통상전략: 아프리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표 3-16. 계속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경쟁력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남아프리카공화국		30.6(1위)	34.1(2위)	33.8(2위)	18.6(1위)
NEXT-112)	방글라데시	77.2	89.4	79.7	65.0
	이집트	61.7	54.2	52.6	57.9
	인도네시아	61.7	73.2	40.6	66.7
	이란	93.3	93.9	-	74.9
	멕시코	49.4	27.4(1위)	45.1	27.9
	나이지리아	72.2	65.4	74.4	68.3
	파키스탄	77.2	57.0	75.9	46.4
	필리핀	77.2	58.1	65.4	78.7
	터키	33.9	41.9	45.9	39.9
	베트남	66.7	81.0	56.4	50.8

주: 1)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를 상위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으로써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하다.
2) 2005년 12월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BRICs 이후 11개국의 신흥시장을 의미한다.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09),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rld Economic Forum,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2009~2010*; Heritage Foundation(2009), *Economic Freedom Index*; World Bank, *Easy of Doing Business Ranking, Doing Business i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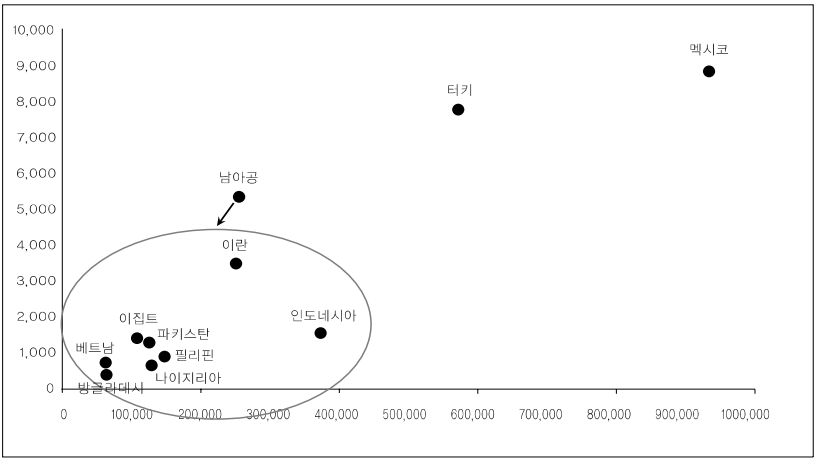
남아공은 잠재적 측면이 강조되는 미래형 시장이 아닌 이미 구매력이 갖추어진 현재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공의 경제규모(GDP)는 웬만한 Next-11 국가(골드만삭스가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지정한 11개국)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신흥경제국을 압도하고 있다. 구매력(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도 남아공은 대부분의 Next-11 국가를 능가하고 있다.[50)]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의 파워하우스(Powerhouse)로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SSA) 경제규모의 28%, 수입의 35%,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0%, 자동차생산의 84%, 광물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물류 및 금융 허브(hub)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50)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에 가깝다(구매력(PPP) 기준으로 하면 1만 달러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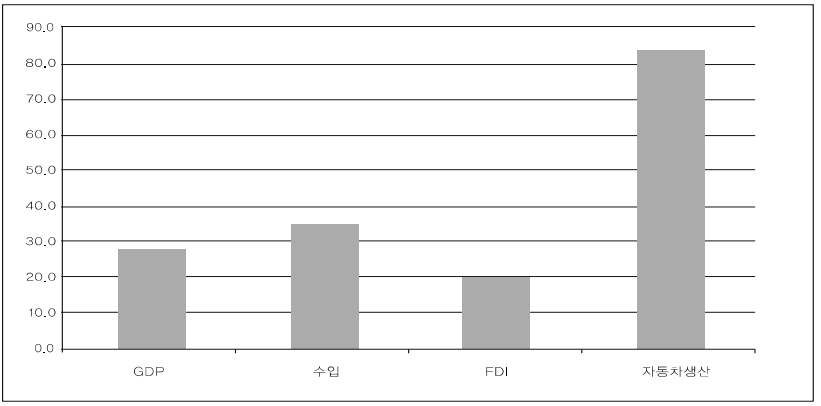
종합하면 남아공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광물자원 등의 다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그림 3-12. 남아공의 성장성 · 시장성 평가 ▐



주: 최근 5년간(2004~08년) 평균값.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3-13. 남아공의 아프리카(SSA) 내 경제적 위상 ▐



자료: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 제도적으로 볼 때 남아공의 외국인투자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오는 2014년 외자 유치 목표를 GDP 대비 25%로 설정하고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대상분야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표 3-17. 남아공의 투자환경 개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및 중간재 확보에 유리 - 저임금의 풍부한 흑인노동력 - 사회간접자본의 발달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 사하라이남지역의 진출 거점화 - 쾌적한 기후	- 불안한 치안상황 - 흑인우대정책(BEE)에 따른 외국기업의 차별 - 전력 부족 - 숙련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 강성노조 - 독과점적 산업구조 - 복잡한 인종 구성 -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 낮은 노동생산성

자료: 필자 작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아공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다. 강도, 살인 등 불안한 치안상황, 숙련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흑인우대정책(BEE), 기존 진출기업의 높은 시장지배력, 강성노조, 에이즈 등은 투자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불안한 치안상황은 최대의 비즈니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와 절도는 남아공 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남아공은 스와질란드,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정기관 확충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는 실업[51]과 흑백 간의 심

각한 경제력 격차[52]에 기인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세계은행의 지니(Gini)지수를 보아도 남아공은 세계에서 빈부격차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2009년 5월 좌파성향의 Zuma 집권 이후 노동조합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전통적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내 주요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좌파성향의 남아공노총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노조활동이 더욱 강경해지는 추세(2009년 7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대규모 파업 발생)이다.

라. 대외경제

1) 교역 현황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상당히 개방된 국가로 교역이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무역수지는 1980~90년대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관세철폐 등 무역자유화 이후 무역흑자 폭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무역 적자는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유가상승에 따른 것이다.

남아공의 3대 수출품은 금, 백금, 석탄으로 전체 수출(2008년)에서 각각 19%, 26%, 12%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수출은 국제시세 등 대외경제 변수에 따라 큰 부침으로 보이고 있는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수입수요 감소 및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23% 감소한 665억 달러를 보였다.

남아공의 수출대상국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51) 남아공 정부당국의 발표에 따른 공식 실업률은 26%(이 자체로도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3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

52) 남아공의 역사는 인종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왔는바, 남아공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흑인과 백인 간의 심각한 경제력 격차이다.

데, 2009년에는 중국이 남아공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53] 중국의 남아공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저가상품 공세를 통해 남아공의 시장침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전체 대외무역이 급증한 것과 관련 있지만 무엇보다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외교력을 집중해온 중국 아프리카 전략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표 3-18. 남아공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	56,260	65,824	75,921	86,119	66,542
수입	56,573	70,020	81,661	90,567	66,008

자료: EIU(2010h), *Country Report: Souts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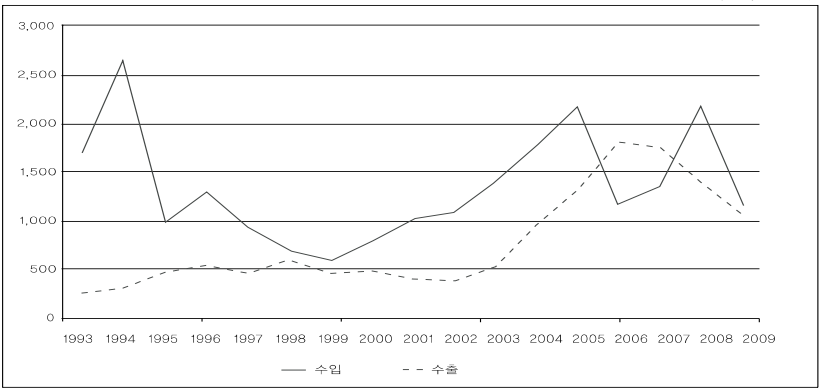
2) 한국과의 경제관계

남아공과 한국의 교역은 1992년 수교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한국은 남아공에 10.8억 달러를 수출하고 11.7억 달러를 수입했다. 남아공은 한국의 최대 아프리카 수출시장으로 주로 자동차, 휴대폰 등을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는 2003년부터 최대 수출상품의 위치를 차지해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합성수지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남아공으로부터 주로 광물자원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광물자원의 대량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53) South Africa Reserve Bank, *Annual Economic Report 2010*

그림 3-14. 한국의 대남아공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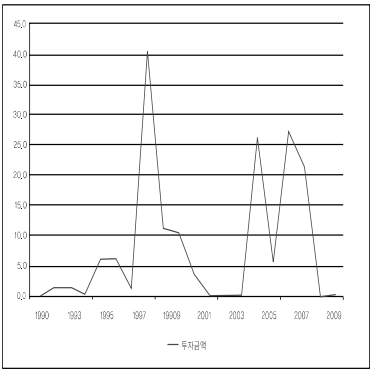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남아공 직접투자는 1992년 시작된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로 큰 부침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68.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8.1%), 부동산 및 임대업(12.1%)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3-19. 한국의 대남아공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투자금액	비중
전 체	169,423.0	100.0
도·소매	115,629.9	68.2
제조	30,658.1	18.1
부동산·임대업	20,411.0	12.0
건설	1,764.6	1.0
사업지원서비스	507.5	0.3
광업	321.7	0.2
전문기술 서비스	105.8	0.1
농림수산	24.5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0).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1991년 7월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노선당(EPRDF: Ethiopia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ary Front)[54]은 멩기스투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집권하였다. 이어 EPRDF은 1995년 총선에서 멜레스를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같은해 8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멜레스 정권은 2010년 5월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19년 연속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멜레스 정권은 안정적인 정치기반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및 빈곤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열악한 국내자본으로는 빈곤퇴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신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원조에 주력하고 있다.[55]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외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방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외원조에 힘입어 교육과 보건 등의 분야에서 빈곤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유럽의 주요 공여대상국으로, 특히 영국은 2008년 에티오피아에 2억 5,000만 달러의 원조를 공여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원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한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리트레아와의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1998년 5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경 간 분쟁으로 2000년 6월까지 7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면전 이후 국제상설중개재판소

54) 인민혁명민주노선당(EPRDF)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veration Front), 암하라민족민주운동(ANDM: Amharar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등이 멩기스투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하여 결성한 정당이다.

55) 에티오피아는 최빈국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8년에는 약 18억 달러가 유입되어 사하라이남에서 가장 높은 원조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인구가 많아 1인당 원조규모는 29달러에 불과하다.

가 설치되어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는 에리트레아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9·11사태 이후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소탕작전에 에티오피아가 도움을 주면서 다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나. 경제 현황

에티오피아는 2008년 기준 실질 경제규모가 약 252억 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많은 인구 및 높은 인구증가율[56]로 1인당 실질 GDP가 189.8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다.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 비중이 46.0%에 이르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풍부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한 농업부문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상황이 종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2003년 이후 연속 두 자릿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도 전년대비 8.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57]은 이러한 높은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오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전통적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8]을 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

56) 인구는 8,522만 명(2008년)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다. 1993년 이후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평균 인구증가율은 2.7%로 매우 높으며, 이와 같은 인구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2015년 인구가 약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임 여성 1인당 평균적으로 5.65명을 출산하며, 높은 인구증가율 및 출산율은 빈곤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57) AfDB(2009), *African Economic Outlook*.

58)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평균은 15.2%.

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목의 90% 이상이 농산물로 농업부문이 에티오피아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 역시 농업개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 1991년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에 주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국가경제 전반이 강수량 및 국제 농산물가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2003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3.9%의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풍부한 강수량으로 농산물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두 자리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표 3-20. 에티오피아의 산업별 성장률 및 비중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 및 임업		9.4	7.5	6.4	40.7
공업		9.5	10.0	9.9	12.3
	건설업	10.9	11.3	11.7	5.5
	제조업	8.3	10.1	9.4	4.7
	전기 및 가스	13.7	4.8	5.7	1.8
	광업	-15.5	21.3	12.9	0.3
서비스		15.3	16.1	14.0	42.5
	도·소매	16.8	15.8	12.1	13.0
	부동산 및 비즈니스	15.2	17.3	16.1	8.6
	운송서비스	9.3	11.6	8.7	5.3
	공공 및 국방 서비스	11.8	12.5	18.4	4.2
	호텔 및 식당 서비스	27.4	23.3	23.9	3.2
	금융중개서비스	15.1	27.4	21.4	2.6
	기타 서비스	15.8	14.1	9.1	5.6
GDP		11.5	10.8	8.7	100.0

자료: Ethiopi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다. 대외경제

1) 교역 현황

에티오피아는 수출품목의 90%가 농산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공산품이다. 최대 수출품목은 단연 커피로 전체 수출에서 35%[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 수출 역시 국제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2008년에는 커피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국제 커피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커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6% 상승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커피 수요가 많은 선진국이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2008년에는 유럽이 에티오피아 전체 수출의 41.9%를 차지했다.

표 3-21.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커피	354.3	35.4	424.2	35.8	524.5	35.8
오일종자	211.4	21.1	187.4	15.8	218.8	14.9
가죽 및 가죽 제품	75.0	7.5	89.6	7.6	99.2	6.8
콩류	37.0	3.7	70.3	5.9	143.6	9.8
합계	1,000.3	100.0	1,185.1	100.0	1,465.7	100.0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 2009: *Annual Report 2008*.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거주자의 송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9) 1990년대 70%까지 육박하였던 커피 수출 비중은 최근 수출상품 다변화 및 국제 커피가격 하락에 따라 30%대로 감소하였다.

표 3-22. 에티오피아 경상수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출	1,000.3	1,185.1	1,465.7
수입	4,592.8	5,126.0	6,810.5
무역수지	-3,592.5	-3940.9	-5,344.8
경상수지	-1,462.6	-782.9	-1,478.4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 2009: *Annual Report 2008*.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해외송금, 대외원조, 해외투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정치불안과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 등으로 대외원조규모가 미미했으나, 2000년대 들어 정치가 안정되고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개발계획(SDPRP)이 수립되면서 해외원조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시기별 해외원조 규모를 보면 1990~99년 동안에는 연평균 4억 4,000만 달러였던 반면에 2000~08년에는 연평균 9억 5,0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해외원조는 국내 총투자의 40%, 정부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60] 에티오피아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정정불안으로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는 정치적 안정과 두 차례(2003년, 2007년)에 걸친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약 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금융서비스, 전기 및 우편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공공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60) OECD 및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2) 주요국의 원조 현황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8년에는 18억 달러의 원조자금이 에티오피아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인구를 감안한 원조규모, 즉 1인당 원조규모는 3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원조를 통한 실질적인 빈곤해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3-23]은 국제기구의 에티오피아 중점 원조분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농업개발부문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개발이 빈곤문제, 나아가 국가개발과 직결되고 있다.

표 3-23. 국제기구의 에티오피아 중점 원조분야

세계은행	1. 공공행정, 지방분권, 공공재정 관리 등 거버넌스
	2.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기초서비스 제공
	3. 자유로운 기업환경 촉진
	4. 농업생산성 향상
아프리카 개발은행	1. 인프라(전력, 상하수, 도로) 개발
	2. 농업환경 개선
	3.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초서비스를 위한 거버넌스
UN	1. 식량안보
	2. 기초사회서비스 및 인적자원 개발
	3. 경제성장 가속화
	4. 에이즈

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에티오피아에 대한 주요 원조공여국의 중점지원분야를 보면 교육, 보건, 의료 등과 같은 기초 사회서비스부문과 식량안보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3-24. 주요 공여국의 분야별 에티오피아 원조동향(2009년) ▌

미국	경제/보건/교육 분야에 2억 달러
	5년간 6개 교육사업에 8,000만 달러
	인적자원개발/보건/에이즈 등에 추가적으로 1,760만 달러 지원
	보건청에 3년간 4,000만 달러 지원
	제우디스투 병원에 380만 달러 상당의 외래병동 지원
영국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2,400달러 원조 지원
	기근 해결에 3,000만 파운드 지원
독일	식량난 해결을 위한 8,000만 유로 지원
일본	교육 및 보건서비스 분야에 60만 달러 지원
중국	1,000달러 원조 제공
	고속도로 건설에 3억 4,900만 달러
국제기구	세계은행, 빈곤 및 식량난 해소를 위해 무상 3억 5,000만 달러, 유상 1억 3,000만 달러 지원
	UNDP, 저소득 청소년에 100만 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

자료: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3) 한국과의 관계

에티오피아는 남아공과 함께 한국전에 참가한 아프리카 국가로 6.25전쟁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총 6,037명을 파견하였고, 1963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거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에 총 1,240만 달러를 지원(유·무상)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총원조액의 약 5%에 해당한다. 무상원조가 1,187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47%), 보건의료(11%), 농어촌개발(4%) 등에 집중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백신과 같은 의약품 및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커피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역규모는 미미하여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액은 2009년 기준 9,416만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0.8%에 불과하다.

표 3-25.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원조 현황(유·무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에티오피아	2.4	2.3	3.3	4.4
아프리카	39.1	47.8	70.2	104.1
아프리카 내 에티오피아 원조비중(%)	6.1	4.8	4.7	4.2

자료: 수출입은행(2010).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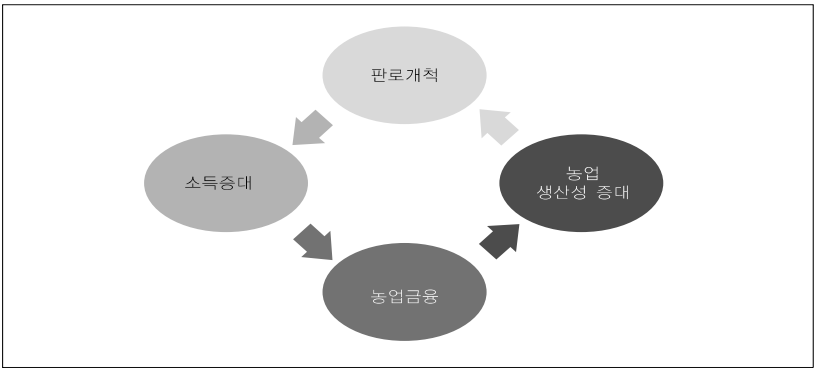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가나는 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처럼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 개발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카카오와 같은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고, 전통적인 농경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는 낮은 편이다.[61] 그러나 최근 들어 가나 정부는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재인식하고 농업 인프라 확충, 농업 유통구조 개선, 영농기업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 농업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1) 가나는 1950년대 독립 이후 공업화 위주의 발전전략을 고수해왔고, 농업개발은 재정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와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 인프라에서부터 농산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농업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자원 및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함으로써 동반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림 4-1. 가나 농업개발 지원의 4대 중심축



자료: 필자 작성.

가나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후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가나 농지의 관개비율은 고작 0.02%로 사실상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뭄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인데 이것이 농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62] 사실 농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개시설 확충과 같은 농업생산 인프라와 함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농산물 가공인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가

62) 이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적인 문제이다.

나 농촌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농산물 가공기술 전수를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63] 이는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등을 통해 무역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가나는 현재 유럽 및 미국이 값싼 토마토 가공품의 유입(연간 1만 톤)으로 인해 현지 농가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나아가 중기적으로는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등 전후방 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농공복합단지(MCI: Multi Industry Clusters)'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여기서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인프라로서 중요한 것은 농촌의 물류비를 줄이고 농촌주민의 시장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자금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가나는 도로(포장비율 20%), 철도, 항만, 전력, 통신 등 인프라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육상 물동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교통망은 심각한 정체현상을 반복하고 있어 물류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나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유공장 확장 공사,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분야에서 다수의 플랜트

63) 우리나라는 탄자니아에 농산물가공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지원(2008~10년, 530만 달러)한 바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주빌리(Jubilee) 유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 발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관련 플랜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많은 해외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나의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력발전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나는 볼타 강에 대규모의 아코솜보(Akosombo)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알루미늄 제련소 등에 전력을 공급해오고 있으나, 최근 강우량 부족으로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에서 부족한 전력을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2006~07년 대규모 전력부족사태를 겪은 이후 전력확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1,200MW의 발전용량을 3~4년 내에 5,000MW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64] 발전용량 확대와 함께 남부와 북부를 잇는 300kv 프레스티아~쿠마시 구간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2개) 건설 등 전력망 확충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매년 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나의 주택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65] 가나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66]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다른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나에서도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이동통신망 서비스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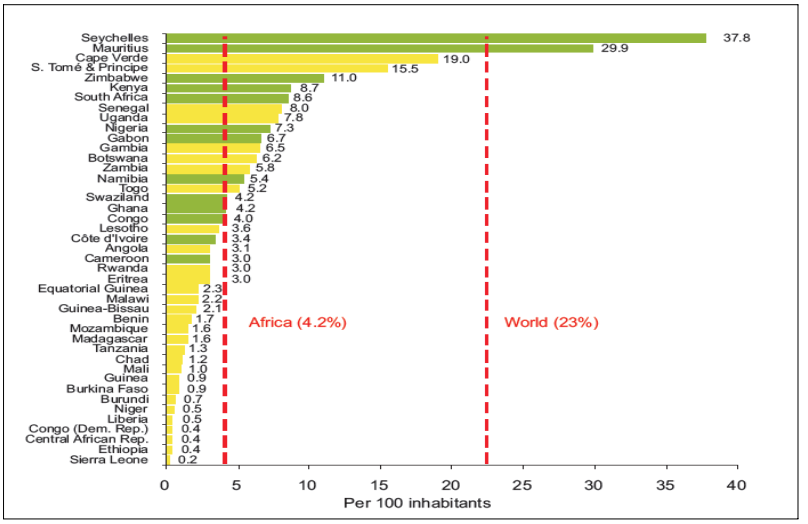
64) 한국수출입은행(2010), 「아프리카 주요 4개국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65) STX는 2009년 12월 가나 수도 아크라를 포함한 주요 10개 도시에 공동주택 20만 가구와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총사업규모는 100억 달러(12조 원)에 달한다.

66) 2004년: 5.8%, 2005: 5.8%, 2006년: 6.3%, 2007년: 5.7%, 2008년: 7.3%, 2009년: 4.7%.

대[67]로 휴대폰 사용인구는 지난 5년간(2003~08년) 7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년 3만 명에서 2009년에는 1,000만 명 가까이로 무려 3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율(14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률(인구 100명 인터넷 사용인구)로 보면 4.2%로 가나는 여전히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것도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 사이버 또는 인터넷 카페(Cyber or Internet Cafe)와 같은 공공장소에 사용되고 있다. 사실 가나에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1%에 불과한데 이는 세이셸(30%), 모리셔스(27.8%), 남아공(14.8%), 마다가스카르(12.8%)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림 4-2.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 비교▐



주: 2008년 기준 인구 100명 인터넷 사용인구.
자료: ITU(2010),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Africa*.

67) 현재 가나의 이동통신 시장은 6개 사업자가 허가(license)를 받아 5개 사업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높은 기술력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IT 협력은 한국과 가나 간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가나에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는 세무 및 통관, 예산 및 회계, 전자여권(e-passport) 및 비자 발급, 정부조달 및 특허, 우편, 자금거래 추적, 재난관리, 질병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가나의 정부전산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은 물론이고 기술 및 정책 자문, 정보화 마인드 교육 등을 통한 'IT 코리아'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국내 IT 산업의 가나,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무형의 협력기반이 될 수 있다.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68]

아프리카, 특히 콩고의 자원개발에서 '동반진출(package deal)'[69]은 우리

68) 박영호 외(2009).

69) '패키지 전략'은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개발권 획득을 계기로 한국 고유의 자원개발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패키지 전략'은 자원보유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에는 의례적으로 SOC 건설 등의 동반산업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은 '패키지'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동반진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략이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산업기반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을 자원개발(국영광산 취득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70] 더욱이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한 접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대외적인 리스크를 들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 사례[71]에서 보듯이 정권 교체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반진출'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정이 불안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로 일괄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자원개발과 무관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산업부문이, 리스크가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에 인위적으로 묶이다보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개발은 탐사에서 개발과정을 거쳐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상 10~15년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상업적 성공률도 5~10%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동반진출의 대표적 사업인 SOC 건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건설을 해주고 대금을 받는 간단한 사업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SOC 등 동반진출 업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고 공사대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반진출' 방식을 선호할 이유가 크지 않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반진출'의 가장 큰 제약요인을 보면 자원개발부

70) 현재 항만(바나나항)-자원개발 연계사업이 추진 중인데 타당성 조사, 전문가 실무회의 운영 및 각종 행정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71) 우리나라는 2006년 나이지리아에서 발전부문과 가스관 건설을 자원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인도 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대형 석유광구 입찰에 성공했으나, 차기정부에서 사업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문과 동반진출부문 간의 상이한 위험구조, 수익 및 위험 배분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자원개발부문과 동반진출부문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업체 간의 수익배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자원개발부문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전에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배분구조에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동반진출'은 주로 탐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사단계에서는 현금흐름이나 상업성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72]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내부조율, 즉 사전에 사업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대방 국가의 정부가 바뀌는 등 정치적 변화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다든지, 아니면 당초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진출'은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서 성격이 다른 부문이 결합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위험 및 수익 배분, 자금조달, 사업성 평가 등에서 이해당사자, 자원개발업체와 SOC 업체 간의 합의도출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동반진출 대상국가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 관련 공기업의 지도층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광역화될수록 사업취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어력이 커질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해당 국가의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감시시스템(watch dog)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72) 매장량이 확인된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는 이미 그 자체가 실현된 자산이므로 '동반진출'의 사업기회는 거의 없다.

나. 인프라 건설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 인프라 시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괴되고, 남아 있는 인프라마저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여건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도로 총연장은 17만 1,250km인데 이 중 포장도로는 2,250km에 불과하다. 이것마저도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아 도로망 신설 및 복구가 국가발전의 1차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73] Kinshasa(수도)와 Matadi항을 연결하는 도로와 남부 Katanga 지역의 몇몇 구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74]

콩고는 전국적으로 5만 8,000km의 도시 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중 킨사사(Kinshasa)와 루룸바시(Lubumbashi) 지역을 연결하는 약 3,500km의 국도 1호선 건설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시도로 7,500km 건설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6,800km는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 총연장은 5,033km로 모두 3개의 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부문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로규격이 서로 달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5] 또한 철도신호 및 통신장비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콩고의 철도망은 남부지역(Katanga 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잠비아와 남아공으로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항만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항구로는 Matadi 등이 있

73) 도로의 95% 이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74) Kinshasa~Matadi 구간은 250Km이지만 자동차로 8~10시간이 소요된다.

75) 콩고의 철도는 모두가 단선철도망으로 대부분 벨기에 식민시대에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철도망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되었고, 그 결과 철도망의 궤간(0.6~1.067m)이 상이하여 철도망 간의 연계성이 없다(국토해양부 2009. 4, 「DR 콩고, 카메룬 진출전략 및 수주확대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으나 시설이 낙후된 데다가 행정력 약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재원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항만시설은 작동되고 있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76] 아울러 선박 입항이 가능하도록 준설이 절실한 상황인데,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형 선박의 출입이 어렵고 때로는 선박이 좌초되기도 한다.[77] 다만 수운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대서양에 접해 있는 해안(항구)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이 가능하고 콩고강과 콩고강 지류 및 호수에 형성된 1만 6,238km의 수로를 통해 물자를 운송한다. 특히 콩고강은 총연장 4,700km로 나일강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길며 콩고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콩고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존 수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신규 설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력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협력기회가 있다. 콩고는 전체 전력생산의 99.7%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발 가능한 수력발전량은 아프리카 전력 총수요의 3배를 능가하는 10만MW(전 세계 수력발전량의 13%에 해당)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4만 4,000MW가 콩고강에 집중되어 있다. 콩고강은 열대우림 속을 흐르는데 수량(초당 4만 2,800m^3)이 풍부하면서도 계절 간 수량변화가 적고 낙차 폭이 커서 수력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콩고의 전기보급률은 사하라이남아프

76) 콩고 정부는 신규 항만개발사업으로 바나나항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콩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나나항 개발 타당성조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콩고 정부는 2008년 6월 자원 연계 또는 BOT 방식으로 바나나항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했고, 2009년 5월 바나나항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77) 국토해양부(2009. 12).

리카의 평균 전기보급률(28.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1.1%[78]로, 5,700만 명의 콩고 국민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160kW/h에서 2007년 97kw/h로 현저히 줄어든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만 보더라도 콩고의 전력사정을 알 수 있다.[79]

이처럼 전기공급이 열악한 이유로는 오랜 내전과 예산부족으로 기존 전력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등한시 되었던 점, 국가기관의 행정역량 부족으로 발전소와 송전로의 증설 및 신규 건설계획의 추진이 부진했던 점을 들 수 있다.[80] 2007년 현재 수력발전설비용량은 잠재발전량의 2.3%를 약간 웃도는 2,344MW에 불과하며, 발전설비의 노후화로 정격출력상태에서 발전이 불가능하고 송배전설비 또한 과부하상태에 있다.[81] 잉가발전소의 경우 발전설비용량 1,775MW의 40%에 해당하는 600~700MW만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콩고 정부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발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송배전망 확충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영전력공사(SNEL)는 2005년 전력발전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4,984MW(2007년 설비용량의 210%)의 전력설비를 증설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수출 또한 더욱 늘려간다는 것이다.[82] 이어 2007년 12월에는 에너지부에서 전력개발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의 전

78) 도시지역의 전기보급률은 30%에 이르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1%에 불과하다.

79) 아프리카 대륙에서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남아공(4,809kW/h), 가장 적은 나라는 에티오피아(38.4kW/h)이다.

80) 상당량의 콩고 전력이 인근 국가인 콩고공화국, 남아공, 잠비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콩고 전기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81) 콩고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국 75개 수력·화력 발전설비 중 설비용량의 60% 정도가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가동이 중단되거나 해체된 상황이다.

82) 'Plan Directeur National de Développment du secteur de l'électricité à l'horizon 2015(National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the Electricity Sector by 2015)', http://www.snel.cd/pagedaccueil.htm

기보급률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83)]

콩고의 전력확충계획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잉가-Ⅲ발전소 건설프로젝트로, 4,500MW 규모의 전력생산을 통해 국내수요 충당은 물론 아프리카 여러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잉가발전프로젝트는 콩고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전력개발계획으로 모두 4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어오고 있다.[84)] 그 시초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하여 1972년에 Inga-Ⅰ 발전소가, 1982년에 Inga-Ⅱ 발전소가 완공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콩고(당시 자이르)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발전소들의 14개 터빈 중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혈세 먹는 하마(White Elephant)'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콩고 정부는 외부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데, 세계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지원받고 있다.[85)]

2004년에는 남부아프리카 5개국의 국영 전력업체가 합작한 West Power Corridor(WESTCOR)[86)]가 출범하면서 Inga-Ⅲ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87)]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력배분 및 자금조달(53억 달러) 등에 대한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고, 2010년 2월 컨소시엄(WESTCOR)이 해체되었다. 현재 콩고 정부는 호주의 자원개발업체인 BHP Billiton이 제안한

83) 그러나 현재 콩고의 행정역량으로는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통계의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SNEL과 에너지부는 전력개발계획에서 각기 다른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84) 아프리카에서 나일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콩고강(4,700km)이 전면 개발되면, 동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 걸친 전력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5) 2007년 세계은행은 총 2억 96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지원하여 Inga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1700MW까지 증산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운 작업환경과 세계 경제위기의 발발로 인해 그 목표를 1300MW로 낮추었다.

86) 남부아프리카 5개국의 국영 전력업체 – NamPower(나미비아), Eskom(남아공),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e (앙골라), Societe Nationale d'Electricitie(DR콩고), Botswana Power Cooperation(보츠와나) – 가 각각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컨소시엄으로 2004년 설립되었다.

87) 이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 전력망(SAPP: Southern African Power Pool)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계획안에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88]

표 4-1. 잉가(Inga)발전소 현황 및 건설계획

	발전소 명	발전설비용량	완료시기	건설비용(백만 달러)
건설 완료	INGA- I	351MW	1972년	550(개 · 보수)
	INGA-II	1,424MW	1982년	
추진 중	INGA-III	4,500MW	미정	5,300
	GRAND INGA	39,000MW	미정	85,000

자료: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en/africa/grand-inga-grand-illusions.

마지막 단계인 Grand Inga 발전프로젝트는 예상 발전설비용량이 총 3만 9,000MW, 송전선로 길이가 1만 355km[89]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사업이다. 그러나 8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는 개발은행들도 투자자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콩고 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전력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다.[90]

한편 송배전 선로의 유지보수 및 전력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송전망 구축사업에도 진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콩고의 전력설비는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이며, 장기 내전과 예산부족으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전 또는 전력공급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88) BHP Billiton은 현재 계획된 4,500MW 규모의 Inga-III 발전소 설비를 2,500MW로 축소하고, 알루미늄 제련소를 함께 건설하는 계획을 콩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이다.

89) 북부계통(콩고~수단~이집트) 5,300km, 서부계통(콩고~가봉~카메룬~나이지리아) 2,100km, 남부계통(콩고~앙골라~나미비아~남아공) 2,955km.

90) 다른 한편에서는 잉가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과만으로 콩고의 전력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획상 송 · 배전시설이 주요 도시와 광산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및 시골 지역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콩고 에너지부는 농촌 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발전소(mini-power plant)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91]

콩고는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고 있는 만큼,[92] 콩고를 우리의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국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새마을운동 전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동질적인 사회집단(homogeneous society)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원천이 강한 지역적 유대감과 결속력 그리고 전통적 리더십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조건은 분명 새마을운동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 신뢰, 협동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렇지 못한 마을에 비해 새마을운동의 접목이 용이할 것이고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스스로 협동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갈등이 일어날 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전수대상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지역주민의 욕구에 제대로 따르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부분적인 사업추진보다는 마을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이 시도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 전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91) 박영호 외(2009).

92)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4년부터 콩고 수도(킨샤사)에서 남서쪽으로 100km에 위치한 2개의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은 자국의 국가재건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문사설(매일경제 2010. 9. 14)을 통해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콩고(DRC)의 농업·농촌 개발에 유익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며 콩고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이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수는 가축사육이나 도로건설 등과 같이 부분적인 개발사업 또는 단순사업 위주로 추진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업추진구조로는 지역주민의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문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고 담당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이 배제된 채 원조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무기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농업전문가들이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였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농촌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약간의 물질적 지원을 하고 운동지침을 정해 추진했지만 마을에서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었다.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MVP) 역시 과거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밑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bottom)'이라는 농업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민의 참여문제가 핵심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주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93)]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지하자원 등의 다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지역의 각종 경제통합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국가로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도 높다. 남아공과의 FTA,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기능과 역할은 남아공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근 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사하라이남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로서도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교역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한·남아공 교역은 전형적인 남북교역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상호 보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남아공은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원자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그만큼 FTA 체결에 따른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남아공 FTA를 경제적 기준, 정치·외교적 기준, 거점 활용성 기준으로 평가하면 남아공은 한국의 FTA 체결 대상국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FTA 대상국 선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에서의 시장규모, 국내산업과 상대국 산업 간의 상호 보완성 정도,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기타 정치, 사회적 변수 등이 있

93) 박영호 외(2007).

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의 FTA 대상국으로서 남아공을 평가하면 [표 4-2]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의 첫 번째 FTA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었으며, 한·남아공 정책협의회(2005. 6)에서 남아공 정부로부터 FTA 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전무하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94]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표 4-2. FTA 대상국으로서의 남아공

구분	주요 특징
시장규모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규모 ■ BRICs 이후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 ■ 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4 차지 ■ 한·남아공 교역 증대
산업간 상호 보완성	■ 매우 높음(공산품수출·원자재수입 구조) ■ 상호 보완효과 기대
정치적 안정성	■ 정치적으로 안정 ■ 다만 치안불안문제는 심각한 수준
거점지역으로의 활용	■ 아프리카의 최대 거점지역 ■ 남부아프리카의 물류허브 ■ 역내 경제통합체(SACU·SADC) 주도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전술한 바와 같이 남아공은 석유를 제외한 수많은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자원보고이다. 그러나 남아공 광물자원은 유럽을 비롯한 서방 메이저들과 자

94) 남아공과 인근 4개국(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로 구성되어 있다.

국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방의 광물 메이저들은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남아공 경제를 주도해왔으며,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남아공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 이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남아공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제도화되어 있는 흑인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ntities) 역시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흑인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공 생활환경에서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흑인에 대한 지분양도, 흑인기업으로부터의 조달비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참여가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화한 강성노조, 극심한 환율불안, 높은 범죄율 등을 감안할 때 남아공에는 많은 비즈니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진출전략 가운데 하나는 선진 광물업체와의 동반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선진기업들과의 진출경쟁에 어려움이 크고,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고려할 때, 선진기업과의 동반진출은 우리 업체의 진출부담을 완화(mitigatio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업체와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 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들의 진출기반과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사업경험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업체와의 동반진출은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는데, 만일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진국 메이저들의 현지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원자력 협력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공은 1984년부터 2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비중은 5~6% 정도이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지금의 '석탄의존적' 전력구조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문제에도 역행한다고 인식하고 원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남아공은 신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2월 취소한 원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95] 2030년까지 1만 2,0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의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남아공의 원전사업 발주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텐데, 우선적으로는 원자력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대해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아공 원전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중남부아프리카 원전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다.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96]

남아공은 전력부족의 해결책으로 2003년 「신재생에너지 정책(Renewable Energy Policy)」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에너지[97]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

95) 남아공 정부는 원전 4기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가격 과다와 재원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찰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전력요금 체계 등을 결정한 다음에 원전 건설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6) 박영호 외(2010).

원의 다변화정책을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남아공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은 2007년「바이오연료 산업전략(Industrial Biofuel Strategy)」수립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 전략은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액체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4억ℓ)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산업지원,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과 같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남아공의 바이오에너지 육성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인데, 사업 첫 해에는 50%, 두 번째 해에는 30%, 세 번째 해에는 20%의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광물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설치하고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보조금사업을 통해 바이오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우대정책이며, 앞으로는 석유도매상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에너지 판매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확대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대형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소규모 생산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수요 증가와 바이오에너지 수익성 확대를 감안할 때 생산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은행 등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남아공 공기업인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과 에너지펀드(Central Energy Fund)는 현재 약 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각각

97)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각종 변환공정을 통해 사탕수수, 자트로파 등과 같은 여러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어지는 연료, 전기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9,000만ℓ와 1억ℓ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설 2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바이오에탄올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하여 옥수수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Stellenbosch 대학(케이프타운 소재)에 5년간 2,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식량안보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사탕수수·사탕무(바이오에탄올)와 카놀라유·해바라기(바이오디젤) 등의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사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원료들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사탕수수 농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98]

바이오에너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상용화가 가장 빠른 바이오디젤의 경우에는 기술수준이 7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록 에너지용으로는 현재 실증연구단계에 있으나, 주정생산으로 이미 기술이 상용화된 바이오에탄올분야는 65%로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표 4-3.

비교우위	KOICA 사업
-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에 비해 열세 - 바이오디젤의 경우 74%의 기술력 보유	- 바이오에너지(팜오일) 개발사업(인니) - 산림 바이오매스 개발모델사업(인니) - 바이오에탄올 연구센터 건립(필리핀)

자료: KOICA.

98) Ferdi Meyer *et al.* (2009), *Biofuel Development in the SADC Region*, Bureau for Good and Agricultural Policy.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비중은 고작 15% 정도이며,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2%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99] 최근 경제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능력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발전과 송배전을 포함하는 전력 관련 설비투자가 절실하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전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4. 에티오피아의 전기보급 현황(2008년)

국가	전기보급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백만 명)
	전체	도시	농촌	
남아공	75.0	88.0	55.0	12.0
가나	54.0	85.0	23.0	11.0
나이지리아	46.8	69.0	26.0	80.6
세네갈	42.0	74.7	18	7.4
카메룬	29.4	45.0	9.0	13.4
앙골라	26.2	38.0	10.7	12.9
에티오피아	15.3	80.0	2.0	68.7
케냐	15.0	51.3	5.0	32.8
모잠비크	11.7	21.0	6.3	19.3
탄자니아	11.5	39.0	2.0	36.8
DR콩고	11.1	25.0	4.0	57.0
아프리카(SSA)	28.5	57.5	11.9	587

자료: IEA(2009), *World Energy Outlook 2009*.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콩고, 앙골라, 카메룬 등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티

99) 전력 구성을 보면 수력발전이 95.5%(2008년)로 절대적이며 나머지는 지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오피아는 지리적으로 청나일강[100](Blue Nile River)이라 불리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수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에티오피아 9개의 강이 수력발전 건설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잠재적 발전용량이 시간당 4만 5,000MW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력을 이용한 발전량은 790MW로 그 잠재력에 비해 3% 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풍부한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발전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01]

수력발전은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사업이 아닐 수 없지만,[102] 우리는 지원 역량 등을 감안하여 소수력 발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협력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에티오피아 소수력발전은 현재 전체 전력공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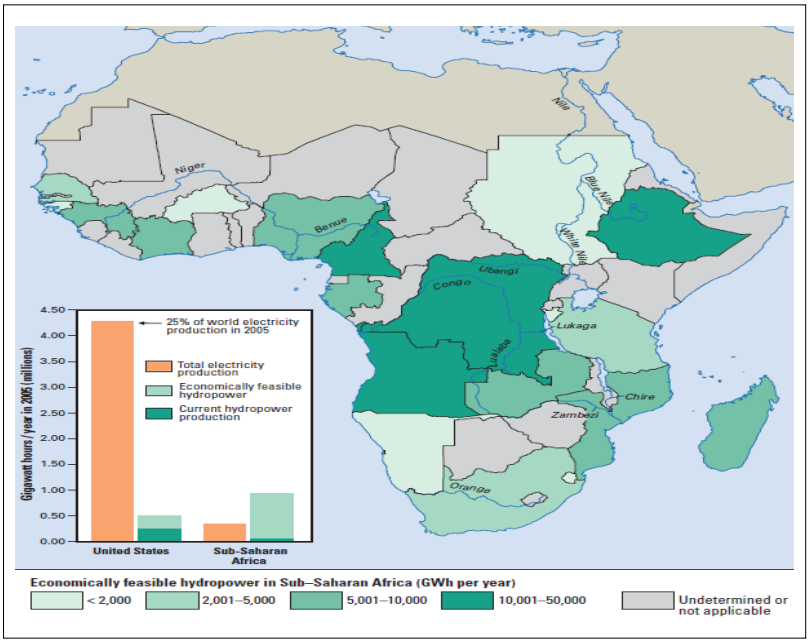
100) 청나일강은 수단의 백나일강(White Nile River)과 합쳐져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흐른다.

101)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도(아디스아바바) 남쪽 700km 지역에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생산 능력은 246MW이며 투자비는 4.7억 달러에 달한다. 에티오피아는 이 사업에 한국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ODA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102) 수력발전은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댐을 건설하게 되면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 관개용수 확보라는 전후방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의 수력발전능력을 늘림으로써 '아프리카 뿔' 지역에 전력 풀(pool)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케냐 등 주변국가와의 전력거래를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함으로써 역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3)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with Emphasis on Rural Electrification.

그림 4-3. 아프리카의 수력발전 잠재력



주: 미국은 수력발전 잠재력의 50% 이상을 개발한 상태인 반면에 아프리카(SSA)는 그 비율이 7~8% 불과.
자료: International Journal on Hydropower and Dams, World Atlas, 2006 (http://hydropower-dams.com).

우리나라의 소수력발전시스템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104] 개발원조자금(KOICA)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타지키스탄 등에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 보건의료 지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환경이 극히 열악하다.[105] 에

10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08),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105) WHO(2009).

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외래환자의 17%, 입원환자의 29%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으며,[106] 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20%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다.[107]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말라리아와 함께 결핵도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 에티오피아의 결핵 발병률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기준 10만 명당 결핵 발생환자 수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378.2명으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358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식수 및 위생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는 41.2%이고,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21.3%에 불과한 실정이다.[108]

표 4-5. 국내 소수력발전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2006년 기준)

핵심기술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핵심기술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소수력 자원조사 및 활용	94.5	자동화 및 계통연계장치	85
수차	65	시스템 감시 및 진단	85
발전기	90	성능평가	60
송배전설비	90	시공	90
강재설비	90	전체	81.6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08),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106) Sameh El-Saharty *et al*.(2009), Ethiopia: Improving Health Service Delivery.

107) 연간 1,530여 명의 아동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8) UNICEF(2009), *UNICF Ethiopa's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에티오피아에서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기초의료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료가 쉽지 않으며 의료진과 의약품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09] 특히 인구의 83%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크게 열악하고 그나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빈곤'이 심각한 실정이다. 에티오피아 농촌지역의 환자가 병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545분으로 도시(74분 소요)에 비해 7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110] 도시에는 반경 5km 이내에 대부분의 보건시설이 있는 반면에 농촌의 경우 그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 전체 가구의 약 50%가 보건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1]

에티오피아는 이와 같이 보건시설의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 병원, 의료진도 크게 부족하여 많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5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병상 개수는 20개, 간호사는 14명이며 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하다. 가나의 경우 1만 명당 병상 수는 90개, 간호사는 89명, 의사는 15명이며, 에티오피아보다 1인당 GDP가 낮은 DR콩고 역시 간호사는 51명, 의사는 10명으로 에티오피아보다는 의료환경이 양호한 편이다.[112]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수준인데 에티오피아 아동의 백신접종률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보다 훨씬 낮다. 전문의에 의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를 보더라도 에티오피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이 6%에 불과한 실정이다.

109) WHO(2004), *Health Profile*.

110) MoH(2007), *Health and Helath Related Indicators*.

111) Sameh El-Saharty *et al*.(2009), *Ethiopia: Improving Health Service Delivery*.

112) AfDB(2009),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표 4-6. 에티오피아의 아동 백신접종률

(단위: %)

구분	DPT3	홍역
에티오피아	32	35
사하라이남아프리카	64	64
개도국	67	63

주: DPT3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자료: Sameh El-Saharty *et al.*(2009), *Ethiopia: Improving Health Service Delivery*.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건환경 개선사업을 국가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 재정 및 집행역량의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인당 연간 보건비 지출이 5달러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36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7년 기준 정부지출에서 보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며, 이것도 대부분(70%)이 해외원조로 조달되고 있다.[113] 에티오피아 국민의 보건문제는 사실상 해외원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4-7. 에티오피아의 보건분야 정부지출 비중

(단위: %)

구분	2002~03년	2003~04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5년 평균
교육	16.1	20.4	19.7	21.8	23.7	20.34
보건	4.9	4.3	4.8	4.6	6.6	5.04
식량안보	8.1	13.4	16.3	16.8	12.5	13.42
도로	9.9	9.6	11.3	12.5	14.1	11.48
식수	2.9	2.0	4.5	4.4	6.0	3.96
합계	42	50	57	60.1	62.9	54.4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 *Annual Report 2008*.

113) Getnet Alemu(2009), *A case study on aid effectiveness in Ethiopia*.

다. 교육개발 지원

에티오피아의 교육환경은 보건환경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114]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은 물론 이웃국가인 우간다(74.6%) 등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동안 여러 교육개발정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등록학생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시설 역시 보건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의 95% 이상이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반면에 농촌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 예컨대 두 농촌지역(Benishangul-Gumuz, Somali)의 경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인구비율은 각각 11%와 19%에 불과하다.[115] 이에 따라 초등교육 등록률이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와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학생 수 대비 학교시설과 교사 비율만 보더라도 에티오피아 교육환경의 현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다. 에티오피아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59.3명, 중등학교는 46.2명으로, 아프리카(사하라이남) 평균(각각 39.3명, 26.2명)에 비해서도 크게 열악하다.[116]

114) 2004년 기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15) PASDEP 보고서.

116) AfDB(2009).

표 4-8. 에티오피아의 지역별 초등교육 등록률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정부 목표치
전체 등록률	68.5	77.5	79.1	83.4	83.0	87.8
남학생	73.2	81.2	82.6	86.0	84.6	92.5
여학생	63.6	73.2	75.5	80.7	81.3	82.9

지역별 등록률			
	전체	남학생	여학생
Tigray	96.9	95.6	98.1
Afar	24.4	25.3	23.2
Amhara	102.2	101.4	103.1
Oromia	77.9	80.9	74.8
Somali	31.6	33.3	29.4
Benishangul-Gumuz	88.6	97.0	80.1
SNNP	89.4	94.3	84.5
Gambella	75.2	80.2	69.7
Harari	91.9	100.2	83.6
Addis Ababa	76.1	78.2	74.4
DireDawa	73.4	76.5	70.2

자료: Ethiopia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tatistics Annual Abstract*.

라. 농업개발 지원

에티오피아는 전형적인 농업국가[117]로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개시설을 비롯한 농업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농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전체 경작 가능 농지 가운데 개간된 농지는 10%(1,100만ha) 정도이며 그나마 관개시설이 있는 농지(19만ha)는 1.7%에 불과하다. 관개시설 없이 빗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수량에 따라 농산물의 작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식량안보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에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필수요소인데, 만약 우기에 비가 안 내리거나 건기가 길어지면 이것이 기근으로 이

117) GDP와 농업부문 GDP의 상관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1~2008년 농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0.84로 제조업(0.58), 서비스업(0.78)보다 크게 나타난다.

어지게 된다. 여기에 낮은 비료 사용 및 구식의 영농기법으로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어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식인 테프(teff)의 생산성은 ha당 0.4톤에 불과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1991년부터 농업개발전략(ADLI: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생산성이 높고 식량 자급자족에 기여할 수 있는 쌀과 옥수수 등에 생산기술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쌀은 현재 북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생산성은 주식인 테프에 비해 4~5배 높아 식량부족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118] 옥수수는 에티오피아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만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식량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9. 에티오피아 주요 작물의 생산성(2008년)

(단위: 톤, 톤/ha)

구분		생산량(톤)	생산성(톤/헥타르)
옥수수	에티오피아	3,776,440	2.1
	아프리카	53,201,235	1.8
	전 세계	822,712,527	5.1
쌀	에티오피아	24,434	1.9
	아프리카	23,175,091	2.4
	전 세계	685,013,374	4.3
밀	에티오피아	2,463,064	1.7
	아프리카	21,128,723	2.2
	전 세계	689,945,712	3.1

자료: FAO Statistics.

118)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쌀생산성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축산분야에서의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 강국'[119]인 만큼, 우량종 개발 등 우리의 축산기술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120] 현재 에티오피아 축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 분산되어 있어 인공수정기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조잡한 사육환경으로 가축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업교육 지원 역시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문맹률이 가장 높고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농촌지도자층이 두텁지 못하다. 농촌지역에는 학교, 농업전문기관 등 교육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선진 농업기술이나 농업 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민은 재래식 농법에 의존한 채 생산성 증대나 토질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농사지식 없이 비효율성을 반복하고 있다.

마. 식수개발

에티오피아는 다른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식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121]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인데, 물론 이는 안전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물 사정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극히 열악한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119) 소 3,300만 마리, 양 2,500만, 염소 1,800만 마리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

120) 에티오피아 정부는 소의 종자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121) 2009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약 3.4억 명이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농촌주민(주로 부녀자)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평균 6km를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Commission for Africa 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표 4-10. 아프리카의 물부족국가 전망(2025년)

물기근국가 (water scarcity)	지부티, 카보베르데, 케냐, 브룬디,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 이집트, 남아공, 코모로스
물부족국가 (water stress)	에티오피아, 모리셔스, 레소토,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나이지리아, 토고, 가나, 우간다

주: 물부족국가(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000~1,700m3), 물기근국가(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000m^3 이하).

식수개발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지역에서 우물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사업성과와 아프리카의 물 사정을 감안할 때 식수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교우위	KOICA 사업
- 수자원 보존 및 수질관리, 지하수 개발 등에서 노하우 및 비교우위 - 수자원공사는 100건 이상의 해외사업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무료로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K-water 수돗물 품질인증제 시행	- 식수개발사업(에티오피아/탄자니아/우간다/케냐/몽골/아프가니스탄/페루/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 수자원개발 M/P 수립 지원(캄보디아) - 마을공동 우물개발사업(라오스) - 수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요르단)

자료: KOICA.

제5장

맺음말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와의 경제협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서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10대 경영기술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투자진출을 꼽은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석유를 비롯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원개발 다변화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플랜트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2의 중동'에 버금가는 신흥 건설시장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수출시장으로의 잠재력도 부각되고 있다. 오는 2015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의 GDP 규모가 2009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

리 정부와 기업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를 간파하고 장기 비전 하에서 협력관계를 끌어올리려는 정부차원의 이니셔티브는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의 협력 인프라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한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1982년에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4년이 지난 2006년에야 두 번째 정상 방문이 이루어져 이제까지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방문은 두 번에 불과하다. 2006년 「아프리카 개발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대책이 마련된 바 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일부 국가와 건설 또는 자원협력이라는 한정된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크게 부족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미개척의 대륙이 아니며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하는 글로벌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염두에 둔다면 아프리카 시장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방 언론에서는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유럽계 기업들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프리카에는 다른 일반 개도국과는 달리 많은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것이 시장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기회'의 요인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위험'과 '기회', 그리고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프리카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부부처가 아닌 범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개발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빈곤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측면에서 우리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도출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부처에서 논의되어왔던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개발협력분야로는 농업·농촌 개발협력과 수력발전 개발협력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개발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은 이 지역의 빈곤해소는 물론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공유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아프리카 실정에 맞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력분야도 중점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의 심각한 전력난은 산업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위생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빈곤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협력역량을 감안하여 정부부처별로 협력대상국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핵심전략국가에 집중하여 이 협력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자원부국 자원벨트 지역에 농업·농촌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지원(개발협력)과 자원개발(산업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지역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원개발 허가는 국가가 내어준다고 해도 개발사업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파트너는 해당 지역사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자원개발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아프리카 협력에서 후발주자로 경제협력 경험이 일천하

고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므로, 경쟁국과 차별화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거대 신흥국가들과도 경쟁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협력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력 강화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 시장개척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협력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우리의 협력파트너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는 사실상 불모지로 방치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심지어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 즉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협력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협력기반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국토해양부. 2009. 「DR콩고, 카메룬 진출전략 및 수주확대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김승민. 2007. 10.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자원 잠재력과 경제발전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3호.

박영호·허윤선. 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외. 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통상전략: 아프리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8.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0a.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0b.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시리즈』.

외교통상부. 2008. 3. 「대아프리카 에너지 자원외교 강화」. 회의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7. 「희망의 대륙: 아프리카 자원여행」.

한국수출입은행. 2010. 「아프리카 주요 4개국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매일경제신문』. 2004. 11. 9.

●● 영문자료

AfDB. 2009a. *African Economic Outlook*.

_____. 2009b.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08. R*eview of Bank Group Assistance To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with Emphasis on Rural Electrification.

Amigun et al. 2008. "Commercialization of Biofuel Industry in Africa: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12, Issue 3, pp. 690-711 (April)

BMI. 2008. *DR Congo Mining Report*, Q3.

_____. 2009a. *South Africa Autos Report*.

_____. 2009b. *South Africa Mining Report*.

Commission for Africa. 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EIU. 2008. *Country Profile*.

EIU. 2010a. *Country Profile: DRC*.

_____. 2010b. *Country Profile: Ethiopia*.

_____. 2010c. *Country Profile: Ghana*.

_____. 2010d. *Country Profile: South Africa*.

_____. 2010e. *Country Report: DRC*.

_____. 2010f. *Country Report: Ethiopia*.

_____. 2010g. *Country Report: Ghana*.

_____. 2010h. *Country Report: South Africa*.

Ethiopia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tatistics Annual Abstract.*

Ethiopi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o Ghana. 2009.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 2008- Final Report.*

FAO. Statistics.

FAO. 2009. *Statistical Yearbook.*

Ferdi Meyer *et al*. 2009. *Biofuel Development in the SADC Region.* Bureau for Good and Agricultural Policy.

FMOH. 1999. *Health and Health Related Indicator.*

Getnet Alemu. 2009. *A Case Study on Aid Effectiveness in Ethiopia.*

Heritage Foundation. 2009. *Economic Freedom Index.*

HNP. 2009. *Ethiopia: Improving Health Service Delivery.*

IEA. 2009. *World Energy Outlook.*

IMF. 2006. 1.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RSP-2003/04.

_____. 2010. *World Economic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n Hydropower and Dams. 2006. *World Atlas*.

ITU. 2010.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al Profiles: Africa.*

Ministry of Education. 2010. 3. *Education Statistics Annual Abstract.*

MOFED. 2008. *Dynamics of Growth and Poverty in Ethiopia.*

MoH. 2007. *Health and Helath Related Indicators.*

National Bank of Ethiopia. *Annual Report 2008*.

PASDEP Report.

Rapport National d'Investissement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 2008.

Sameh El-Saharty *et al*. 2009. Ethiopia : Improving Health Service Delivery.

South Africa Reserve Bank. *Annual Economic Report 2010*.

South Africa Yearbook. 2008/09.

Stephen Karekezi and Waeni Kithyoma. 2002. "Renewable Energy Strategies for Rural Africa : is a PV-led Renewable Energy Strategy the Right Approach for Providing Modern Energy to the Rural Poor of Sub-Saharan Africa?" *Energy Policy,* 30, p. 1071.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9. *Corruption Perception Index.*

UN. 2007.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nual Ministerial Review-The 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GPRS II).*

UNCTAD. *Country Fact Sheet*.

UNICEF. 2005. *Malaria In Ethiopia*.

_____. 2009. *UNICF Ethiopa's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US Geological Survey(USGS).

USGS. 2008.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8: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통계.

WHO. 2004. *Health Profile*.

World Bank. 2009. "Africa Energy Poverty." *G8 Energy Ministers Meeting 2009*.

_____. 2010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_____. *Easy of Doing Business Ranking, Doing Business in 2009.*

_____. *Enterprise Surve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09-2010.*

_____.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2009-2010.*

●● 웹사이트

http://hydropower-dams.com.

http://www.internationalrivers.org/en/africa/grand-inga-grand-illusions.

http://www.usgs.gov.

■ ■ Executive Summary

The Strategy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jor African Countries: Ghana, DRC, South Africa, Ethiopia

Youngho Park, Minhee Kim and Hyelin Jeon

Africa is emerging as a new partner for cooperation in the 21th century. During the 20th century, Africa has been perceived as a "crisis continent" with no potential of development. But recently, as a result of new changes, is becoming a market with opportunities The basis of these changes is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development that have occurred in Africa as well as its strategic value as a resource development marke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believe that if Africa achieves political stability, it will become a new global growth engine. There are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views toward the future of African development, but the optimistic view recently have recently begun to prevail.

Attention is being given to Africa's potential value asthe final remaining niche market in the world. Africa not only has economical values in such areas as resource procurement but can also be a partner for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Africa's 53 nations represent 28% of the states comprising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us it could be said that close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n nations would have a direct impact on South Korea's diplomatic competence. Africa's importance as a strategic

partner is recently increasing as African nations, through the African Union, are letting themselves be heardon international problems with a concerted voice. Nevertheless, emphasizing solely on South Korea's economical benefits from cooperation would only bring temporary effects. What is needed is a mutually beneficial and future-oriented partnership founded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s South Korea possesses both experience in overcoming poverty and development know-how, it could assist in developing Africa's potential capabilities and increasing the ability of African countries to help themselves. Many African nations are actually learning from South Korea's development history, which overcame experiences of colonization and war, and finally succeeding as a result of rapid growth and African countries are eager to benchmark South Korea's policies.

Increasing cooperation with everyAfrican nation is unrealistic considering South Korea's present capability in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ould be too limited; meaning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inevitable.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identifies 4 countries deemed as requiring preferential attention: Ghana, Congo, South Africa and Ethiopia, who are also deemed major cooperation partner nations. There is a high chance of cooperation with Ghana, the nation with the highest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West Africa, as it has much interest in Sou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neral-rich Congo is also a possible cooperation partner in resource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givenits recent concentration on national development. South Africa is strategically valuable as it is a resource-rich nation as well as the largest market in Africa. Although Ethiopia is the poorest nation in Africa, it is socially and politically stable and it also has a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an ally during the Korean War.

A summary of the promising fields or plans for cooperation with these major cooperation partner nations are as follows. First, comprehensive

agricultural cooperation, construction plants and an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 are key fields for cooperation with Ghana. Ghana has a high potential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s it possesses extensive arable land and a great reservoir in the form of Lake Volta. There is a need to utilize development aid funds for measures which includ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upport such as the expansion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ining center for processing ofagricultural products. From a more long-term aspect, promoting and developing it into an MCI should receive serious consideration. This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entry of domestic agricultural businesses into Africa. On the other hand, the Ghanaian government is investing a majority of its budget in infrastructure expansion, which offers great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Also, by participating in Ghana's national informatization projects, cooperation in high-value fields, e.g. e-government establishment, high-speed communications network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IT master plans, is also feasible.

Second, resource development in connectionwith SOC construc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establishmentof infrastructure fo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or power distribution, and guidance in implementation of the Saemaeul movement are candidate fields for cooperation presented for Congo. As Congo is presently focusing on SOC construction, of which South Korea possesses comparative advantage,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plans which links SOC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tog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tie resource development with SOC construction because with a national budget scale of just4 billion dollars, Congo has difficulty in paying SOC construction costs. Yet, as has been experienced in the past, the matter depends on the prior organization of risk bearing and gain sharing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cipating entities. Cooperative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emaeul movement in agricultural regions is also required. Since Congo shows much interest in the Saemaeul movement, it

would be wise to make Congo the role model for implementation guidance of the Saemaeul movement in Africa. It is crucial that the guidance provided by South Korea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specific tothe partner rather than a simple one-sided guidance based on past experiences of South Korea.

Third, resource development, nuclear cooperation and bio-energy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advanced economies and FTA negotiations are fields for cooperation to be presented for South Africa. Considering the inter-African status of South Africa, an FTA with South Africa would lead to a cooperation mechanism which shall promote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Africa. As South Africa is a member of a customs union, the SACU, approaching SACU is also required separately from bilateral negotiations. For resource development, entering Africa in concert with a major western major nationis recommended. In South Africa, the entry barriers for resource development are high because most of the market is dominated by major European nations. Thus, co-entry with major European nations would eliminate the challenges posed by market monopoly and also disperse theaccompanied risk forthese fields. There are also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the field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uch as nuclear and bio-energy. Currently, South Africa is suffering from lack of power and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in search for alternatives. South Korea's experience and know-how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presents wide opportunities in the South African nuclear market. It is important to impress South Korea's nuclear technology and world class management capabilities upon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through human resources exchange.

Fourth, small-scale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public health and education development support, agricultural development support and supply of drinking water are fields for cooperation presented for Ethiopia. Although

Ethiopia has poor power conditions, it possesses great potential in the field of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South Korea should consider providing support in the construction of small-scale hydroelectric power plants. Small-scale hydroelectric power plants (below 10MW) are independent means of power supply which have a low cost and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upply power to small urban or agricultural regions which are located far from power transmission networks. Expansion in support for public health and education is also required. Ethiopia has one of the poorest public health conditions in Africa, as 68% of its population is exposed to malaria in regions where the disease is endemic. Supplying drinking water is also acute as waterborne diseases frequently cause the death of Ethiopian children who drink polluted water. South Korea possesses comparative advantages in drinking water development projects incorporating well-digging, and should further expand these projects to more areas. Educational support is also required as the literacy rate in Ethiopia is 36%, which is far short of the average for Sub-Saharan Africa nations (68%).

KIEP 최근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0년

10-01 한 · 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 · 성한경 · 이철원 · 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 ·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 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 · 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 · 이시영 · 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 · 백유진 · 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 · 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 · 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 · 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 · 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 콩고(DRC) · 남아공 · 에티오피아 / 박영호 · 김민희 · 전혜린

10-12 아시아 태평양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과제 / 김한성 · 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 김태윤 · 이재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 조명철 · 김지연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 · 강명구 · 김계환 · 김한칠 · 성원용 · 이시영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학 · 문창권 · 변현섭 · 장세진 · 주진홍 · 최호 · 이성훈

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박상남 · 손영훈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 은기수 · 박수미 · 박건 · 장원봉

10-21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10-22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Ⅰ: 정치 · 문화

10-23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Ⅱ: 경제 · 자원 · 과학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 Jee Young Hwang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라윤도 · 이옥순 · 김찬완 · 유태환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 · 아세안 개발협력 / 권율 · 이재호 · 조홍국 외

10-27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권기수 · 김원호 · 이성형 · 김종섭

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김봉훈 외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 김봉훈 외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 김봉훈 외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 김봉훈 외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 발전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 이성신 · 박원장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인수 · 김태은 · 홍승연

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현황과 시사점 / 정계룡 · 손승호 · 이진경 · 이세린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신장섭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 ·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 모색 / 배정환

10-37 한 · 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 김영철 · 구경모 · 김유경 · 박종욱

10-38 한 · 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 방안 / 문남권 · 우제량

10-39 한 · 중미 IT 산업협력 확대 방안 / 최윤국

10-40 한 · 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 방안 / 하상섭 · 정경원 · 손혜현

10-41 한국 · 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 김광임 · 박태윤 · 김윤정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추진방향 / 이훈기 · 박지형 · 이동민 · 김종신 · 주유형

10-43 인도 동부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 이광수 외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 최종찬 외

10-45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장지호 외

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 김순금 외

10-47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규태 외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 · 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 전재성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신윤환 외

10-5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윤 외

10-51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유재원 외

10-52 한국의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 박인원 외

10-53 마약, 조직범죄,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 한용섭 외

10-54 아세안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 황정태 외

10-55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 손혁상 외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장준영

10-57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 조희문 외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 전경수 외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 임상래 외

10-60 중남미 사회 · 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정경원 외

10-61 한 · 중 · 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 정형곤 외

■ 2009년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 권 율 · 정지선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이순철 · 송영철

09-03 한 · 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 조치와 시사점 / 윤창인

09-04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 김양희 · 김은지

09-05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 Silviu Jora

09-06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András Inotai

09-07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 손기태 · 김민희

09-08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 / 허 인 · 박영준

09-09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 방호경

09-1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손기태 · 김민희

09-1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준동 · 김정곤 · 윤상철 · 김봉근

09-12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영관 · 김상원 · 김지연 · 이성훈 · 이유신 · 정기철

09-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 윤성학 · 김일겸 · 노형복 · 변현섭 · 오영일 · 홍성혁

09-14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 이재영 · 고재남 · 박상남 · 이지은

09-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중앙아시아: 정치 · 사회 · 역사 · 문화

09-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Ⅱ 중앙아시아: 경제 · 에너지 · 환경

■ 2008년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 · 중 FTA 대비 / 이창영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정재완 · 방호경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과제 / 정형곤 · 나승권

08-04 한 · 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정성춘 · 이형근

08-05 한 · 중 · 일 對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 김한성 · 이재호 · 백유진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 방호경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 · 일 FTA에의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정지원 · 이형근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 윤창인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김태준 · 문우식 · 송치영 · 유재원 · 채희율

08-10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 서진교 · 정철 · 송백훈 · 남호선 · 박순찬 · 이홍식 · 송유철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매커니즘 분석 / 박순찬 · 김우영 · 이종한 · 이홍식 · 최종일

08-12 시장개방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홍식 · 박순찬 · 김우영

■ 2007년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 · 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7-06 한 · 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박영호(朴英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장
(現, E-mail: parkyh@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공저, 2010)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공저, 2009) 외

김민희(金玟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m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공저, 2010)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공저, 2010) 외

전혜린(田惠麟)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hljeon@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공저, 2010) 외

연구자료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권 율 · 박수경

최근 중국의 원조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원조를 확대해왔고 최근에는 수출 진흥, 투자 확대,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조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신흥원조국으로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ODA 정책규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원조체제에 있어 중국의 등장은 기존 선진국으로 대표되던 원조주체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변화를 낳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년 12월 발행 정가 7,000원 / 104면
ISBN 978-89-322-2183-0 / 978-89-322-2064-2(세트)

• KIEP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 원		1만 2천 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 일체	A 반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10-11

The Strategy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jor African Countries: Ghana, DRC, South Africa, Ethiopia

Youngho Park, Minhee Kim and Hyelin Jeon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낙관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의 지지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및 개발 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선택' 과 '집중' 이 불가피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 · 민주콩고 · 남아공 · 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유망분야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4320
9 788932 221847
ISBN 978-89-322-2184-7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